

『피네간의 경야』 1권 4장(pp. 75-103) —HCE의 서거와 부활—

김 종 건 역

우리들의 눈물마당의 사자獅子가 나일 강의 수련睡蓮을 기억하듯이 (사자 우즈가 혈血리온을 또는 파울아스가 마르메니아 출신의 마다모이젤의 나각裸脚을 잊으리오?) 어쨌거나, 29들이 양동이 가득한 저 내구감耐久感은 농성군籠城軍(HCE)이 나이로 쇠퇴하여, 그를 영락零落시킨 저 오염되지 않은 백합꽃들을 말없이 그리고 단독으로 꿈꾸었던 것을 우리들의 믿음의 가슴속에 봉인함封印函하게 했나니, 그리하여 그의 경야經夜의 방심한 경계자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던 것이로다. 저런, 저런, 매녀魅女들이여! 비누 거품 속에 처박다니(난처하게), 사내도둑놈들! 그놈그놈 그놈그놈! 어쨌거나, 우리는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 최대한 서둘러야하지 않겠는가, 그가 재멸再滅했다는 걸? 예견豫見했던가? 맥열麥熱과 수확의 들판, 거기 곡물 황금녀의 애가愛歌라니? 썸모욕하고 샤운빛났도다. 그러하리라, 우리는 우리들의 착한 도민都民의 시사판時事版이 작은 문門을 조사해 보지 않으면 안되나니, 우리가 알기를 원하기에, 그의 심견深見의 통찰력을 가지고 (염원念願이 빈재頻在하지 않았고 호기好機를 놓쳤는지라), 그의 교장敎長의 방술사원方術師院, 도시 위의 광석당廣石堂 안에서 (능직시綾織市! 능직 마을!) 핑그라스 방앗간의 백마白馬에 탄 빌리 왕상王像답게, 그는 적들을 의식하며, 근심스런 좌석에 앉아, (그대 그러다가 오히려 한 쪽 눈알을 걷어차지 않을지 몰라!) 저 3시간 반의 무언의 번뇌 동안, 악의 심연에서, 그리하여 가식假飾없는 자비와 함께 양육된 채, 자신의 비방자가 성장하여(이齒에 합당한 엔젤자者, 그는 뱀똥의 교활자狡猾者의 이름을 지니며, 울음의 세계 어디서나 반점斑點 배(腹)로 기어다니는지라 (돼지노예, 무릎 꿇는 자!) 밀크, 음악 또는 기혼의 오도誤途된 여인

들을 찾아) 신중의 기민함을 증오하는 신의神意의 자비를 가급히 여겨, 자신의 후예의 현저한 왕조의 최초의 조상이 되기를 기도했나니,

【76】 우리(축사畜舍) 안의 흑안黑顔의 양떼가 아니고 그의 가정의 보다 나이 많은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그의 가장 한결같이 괴롭히는 생각이란 (실례지만, 그의 두 늑대의 지배적 정열은), 한층 호감을 주는 풍토에서처럼, 거기 봉밀 목장이 객우적客友的이요 환희산歡喜山이 햄의 구유 파괴란자破壞卵者들을 접대하는 곳으로, 진짜 범죄계층을 형성하는 일인지라, 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파생된 탈우연화脫偶然化와 함께 모든 계급과 군중들로부터 온갖 삭막朔漠한 비행非行을 마침내 제거하는 것이로다: 광병狂病 (원문대로!) 공포를 자처하니 (신뢰 可!): 따라서, 여인 기교의 제방언어堤防言語로 기록한다면, 시민의 복종은 만인의 건강을 도우나니라.

이제 만사 됐다. 거기 이론은 거기 두고 여기 것은 여기에 되돌리도록 하세. 자 들어요. 그건 재차再次 신선神仙이야. 유리판벽널고정의 티크나무 관棺이, 동향東向으로 수數 피트, 뒤에 크게 유용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시체 곁에 덜렁 들끓, 현저하게 동기를 초래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고산대高山臺 인거다. 꽤 많은 보수적 대중의 육체들이, 그들의 수를 첨가하는 힘을 지닌 선발 및 다른 위원회의 회원수를 통하여, 마을, 항구와 요새要塞를 그들 자신 그리고 그 자신이 인정 투표하기 전에, 하나의 적당한 안성맞춤의 해결로서, 습지濕地(헌법)의 법원 명령을 따르면서, 소小 구획의 존재를 단호히 벗어나, 하나의 사법정四法廷으로서, 그리하여 그대 무리들이 새 트럼프 카드를 자르는 경쟁 선주자先走者에게 대하듯, 그의 육체가 여전히 존속하던 동안, 네스 호반의 최선 전형 典型的, 모알타 들판에 하나의 잠정적 영묘靈廟를 그에게 선물했나니, 그러자 오늘날 호수 부재의 만 섬(島)만큼섬 증오 속에 인기가 있었도다. 끝고루 보란 말이요! 핀 군대의 선임자가 한 움큼 잡자, 아주 상한 생선의 복색통 상태였나니, 그 속에 하나의 고분古墳과 송어松魚川이 있는, 고대의 산림과 다정하고 불결한 더브 심곡深谷으로 풍요豐饒 되고, 그들은 아이작이 그러했듯 낚싯대의 간지러움으로 그녀를 낚아, 그녀의 어리석은 물(水)의 물을 그리고 거기 이제 갈색의 탄수炭水가 물결치는 것을 살피려했던, 어느 윌트(意志者) 또는 윌트(僻者)와 함께 그녀의 시끄럽고 수다스런 농담이 헛되이 무효

한지라, (그들의 누비이불이 그의 이수면泥睡眠의 몸 위에 경쾌하게 금빛 내소서!) 그대 대신代身이, 소신 沼神의 분노에 의하여, 그의 최후를 옆으로 눕히고 있나니, 진 푸른 다뉴우 강의 하상河床 속의 최초의 저주받은 훈족族마냥.

최고로다. 이 존재했던 지하의 천국, 또는 두더지 낙원은 아마도 또한 쟁기 등대의 역적이었을 것인지라, 밀 수확을 양육하고 관광무역을 생강기生薑氣하기 위하여 의도되었던 것이니 (그의 건축인 베르라슈즈 지배인은,성聖 T.A. 베겏과 성聖 L.O. 툴 청부업자 상회가 반박 불가능

【77】 할 정도로 존경받고 있던 사이에 그가 이러한 또 다른 피차물彼此物을 석화石化하지 못하도록 맹목盲目되어 있었나니) 처음에는 서쪽에다, 우리들의 동량지재棟梁之材, 성주城主 고약한孤弱漢(HCE)은, 공개적으로 저주받자 초동 初冬 및 초하初夏 오월제五月祭 장치의 수뢰水雷의 방법으로 그를 터뜨려 날려버렸으니, 재발명된 T.N.T.의 폭탄주爆彈柱로부터 어어이 1130의 날개받침대 (대략) 위의, 그의 자가발전체自家發電體, 공뢰空雷의 우현右舷까지 폭파해버렸던 것으로, 그의 방패판막防牌板幕의 뱃전 상단上段에 동여 묶은 개량된 암모니아의 양철 깡통에 의하여 기대期待되는 광원鑛原과 접촉하고, 그리하여 탄죽걸이 케이블에 융합하여, 회전 포탑을 통하여 미끄러뜨리며 잠수 사령탑으로부터 지상地上 배터리 퓨즈 상자 속으로 누그러뜨렸고, 이들은 모두 열쇠 시계에서 패종 시계처럼 달랐나니, 그 이유인즉 누구도 꼭 같은 시간 수염 판을 지닌 것 같지 않은지라, 어떤 자者는 자신들의 전시계戰時計에 의하여 9시까지 6번 타종이 있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보다 많은 자者들은 라인 강의 시계를 가지고 5시까지 10번의 타종이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는 언제나 자신의 허튼 소란이 그를 쇠퇴하게 하기 시작하고 그의 거친 아우성이 온통 허스키 보이스가 되었나니, 그리하여, 앞으로 몸을 굽힌 채, 그는 그것에 접근하여 (초부樵夫자 비를!) 철근콘크리트 제製の 경과를 방부성防腐性 벽돌과 회반죽으로 조심스럽게 짝 매워, 도랑에서 호濠처럼 단단히, 그리하여 미남 선수, 측구測區, 황소 및 사자獅子, 백白, 옷장 및 혈귀血鬼의 자신의 칠소탑七小塔들의 행정 관할구역 하下에 은퇴했나니, 그런고로 발굽 매장부賣場部를 지닌 대중 추가공익追加共益 위원회(족모足帽 모두 어서 들어오시라!), 그런데 그것은 종축자種畜者 연합, 중요식품 상인 길드 조합과 같은

대여貸與를 위한 상상床上 재고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었으니, 격려하여 성도년成都年 아래, 그에게 장례허식, 그것 위에, 평소의 맥 페라의 고별사, 허의 虛意의 아담 비가悲歌의 대단히 수려한 어구語句의 예를 새긴 한 개의 석판石板을 선사하도록 했는바: 오인吾人은 그대와, 친애하는 태형주筭刑主여, 장절裝絶하도다, 단절하나니, 사거死去로다!

그러하나 그건 집과 온갖 가재점家財店이로다. 전시관展示館, 작별 관가포棺架布, 유골 단지, 고성高聲 구리제품, 코 담배갑, 밀주密酒 통, 눈물단지, 모자 상자, 향수배香水盃, 구토기嘔吐器, 건강 증진 훈제 소시지와 연육軟肉의 돼지 족발을 함유하는, 식욕을 위한 소금 부대, 그리하여 그 점에 관해서는, 그래요 과연, 그의 유리 석묘石墓의 장식을 위한 별별 종류의 토장土葬 잡품雜品들, 만일 이러한 조건제條件體의 연쇄를 충족하건대, 당연히 뒤따르나니, 아아, 정상적인 과정 속에, 소요인간逍遙人間 저 세계 일주자一周者(HCE)가, 이리이러한 난경難境을 겪은

【78】 뒤, 그의 풍요의 인생의 전노前老의 나날을 안전가정적安全家庭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쇠 전의 고통에, 늦은 사순절四旬節을 위안慰安 지속하게 하고, 고진苦塵의 단계까지, 시간의 총화를 한가하게 보내면서 (수 천년동안 잠자도다!) 폭발과 재폭발 사이에 망각진정忘却鎮靜되어 (노호怒號하는 천둥이여! 백억백라이여!), 거두巨頭에서부터 거족 巨足까지, 향유香油된 채, 장대한 시대의, 예상된 죽음 속에 풍요로이.

그러하나 시간의 소환봉사召喚奉仕를 따를지니, 추락墜落 뒤의 봉기蜂起로다. 그곳으로부터 청전적충전靑電擊充電되어, 변방邊方에서 변방으로, 기저基底에서 기저까지, 모든 그의 하계下界를 통하여 번식하는, 헌놈의 골짜기에 잠복 매장된 채, 거주부정居住不定의 각인刻印된 돌쩌기벌레를 인지認知하면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실리국實利國의 인두철광산人頭鐵鑛山, 성서로운 땅, 입찰된 땅에서 낙찰된 땅에까지 항아리와 냄비 그리고 부지깥이와 막대기를 포함하는 그의 지각화성론적地殼火成論의 원종原種을 증식시키는 숨은 보고寶庫를, 창도槍道에서 야수도野獸道까지 재再방문하도다.

아브라함의 고지 위에 다른 춘공春攻이 아주 우연히 닥쳐왔으니, 전부戰父(HCE) (웬고하니 핀 마을에서 암살된 카인 마냥 그를 일곱 번 스스로 매장되

도록 그의 양제養弟가 마침내 설득해 놓았는지라), 그의 수묘水墓 속에 3개월 단자單子 밖에 있지 않았나니 (당시 철야자들과 승마복자들 그리고 발포주發泡酒가 감자柑子혼합튀김으로 증언하나니!) 당시 부패작용이 여느 때처럼 드레퓔스 삼각혼성三脚混成되어, 터벅, 터벅, 터벅 걷기 시작했나니, 소년들은 행진하고 있도다. 눈가리개가 신호를 하자 압지押紙가 홍수를 막았도다. 왜 귀족은 그의 돼지 목소리로 서민을 놀라게 했던가? 포도葡萄 놈들이 문간에서 마스크 총알을 쏘고 있었기 때문이로다. 켈트베리아의 양 진영에서 (신남부新南部 아일랜드와 그 구舊 얼스터의 양측, 청군靑軍과 백안군白顔軍인들은, 교황 찬성 또는 교황 반대의 발효전醱酵戰 중에, 크거나 또는 작거나, 인정된 관념들을 불평하고 있었음을 논의를 위한 시초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신분身分들은, 빈자貧者고 부자고 간에, 각자, 물론, 순수하게 공격적 입장에 있었는지라, 영원永遠은 언제나 그들 편에 올때미인양 속했기 때문이라, 그들의 벨로나의 전여신戰女神의 흑둔부黑臀部, 한 때 백양모무白羊毛舞에로 끌렸던 것이니, (쳇, 얼마나 범죄, 저주, 매도스러웠던가!) 흑자는 청년기에 적당한 영양營養의 결핍으로, 타자는 가족을 위하여 생애를 쪼개야하고 그와 함께 조각彫刻해야 하는 영예로운 역할 속에 이미 포박되고 있었던 거로다. 그리하여, 만일 쇠약무衰弱無가 되면, 교수형구絞首刑具에 끼워진 자는 자신이 이용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암시했던 것 같은지라,

【79】 평원이 어둠 속에 포용되어 있는지라, 낮은 원형 협곡의 우스꽝스러움, 아니, 육신에 있어서 자기자신의 최초의 늙은 비역충虫 까지도, 그리하여 당시 진홍색의 위그 당원, 혹시 이 자者が 그 자者인 자者에 의하여 언덕 위의 황소로 잘못 시각視覺되었나니, 왜고하니 그의 반대자들 사이에 감정이 맴돌고 있었는 바, 것처럼 동면중冬眠中の 이와카 씨氏야말로, 그 자는, 저 유사유리類似琉璃된 생활 이전에, 가공架空의 나날에, 요리사가 말했나니, 수프와 맛 사이에, 자기 자신의 같은 길이의 무지개 빛 송어와 잘 요리된 파이를 먹어치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나니, 마치 여자한테 태어난 어떤 남자도, 아니야, 커다란 관머리의 논병아리 마냥, 생일 하루에 3곱하기20 더하기 10마리의 잉어를 맛있게 먹어치울 수는 없으려니, 정말, 그리하여 1분 동안에 그만큼 많은 피라미를 (커다란 혼합소混合素라니, 교수대여 그를 질식케 하소서!), 마치 사다리

뛰기의 연어처럼 모든 이러한 총체적 시간 동안 비밀리에 그리고 기사騎士 토지 소유권에 의하여 그의 자신의 잘못 둔 지방脂肪에 매달려 살아 갔도다.

귀부인들은, 양치류羊齒類가 과연, 우리들이 우리들의 유산遺産도 알지 못한 채, 거기 조용히 인생의 종말에 다가갈 지구地球으로, 집계벌레가 사자死者에게 그러하듯, 그들의 오물汚物을 운반할 친구였던 때의 최초의 시市(가장 추악한 단 언덕의 이름을 모방하여 부른)의 저 이교도 철기시대를 경멸하지 않았도다.비너스 양讓들은 킁킁 웃어대며 유혹하고 볼카누스 사내들은 허황된 너털털웃음을 분출하나니 그리하여 세계의 전체 아낙네들은 변덕과 들뜸이 프록치마 가득했도다. 사실, 어느 오전 또는 오후를 막론하고 어느 젊은 인간녀人間女 할 것 없이 그녀의 별거벗은 신족神族을 꺼내기 좋아 했나니, 또는 심지어 그들 양쪽을, (우신愚神이여! 울신鬱神이여!) 그리하여 그와 함께 (또는 심지어 그들과 함께) 암전히 기도하나니, 모든 그가 그녀의 취향에 따라, 운 좋도록 갈망하며, 귀여워 경타輕打하며 한층 더 귀여워 간파看破하며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총애寵愛하도다. (탁!) 잘도 그녀는 사랑을 조르나니 그리하여 그녀는 의지를 얻나니 그러나 그녀가 어디서 결혼을 할 것인지 사슴도 모르도다. 정자亭子, 물받이 간, 포장마차, 도랑? 마차, 객차, 손수레, 분노차?

캐이트 스트롱, 미망인 (탁탁!)—그녀는 우리들을 위하여 소로화小路畵를 그리나니, 그녀가 코로 감지했던 백열白熱의 그리고 아주 시각적인, 오랜 더브쓰레기지도地圖의 음산몽극陰散夢劇의 배경속에, 암석의 자기 집 같은 오두막이 한 채 있었으니, 병아리 똥, 악취의 고양이들, 송아지들의 뒷골목, 썩은 마녀채魔女菜, 화농化膿의 고무백 그리고 결식缺食石과 더불어, 더 나쁘지는 않더라도, 미분진微粉塵의 창틀을 통하여 헤어다색鮭魚多色の 세균들을 경쾌하게 들어 보내다니—강과부强寡婦, 당시, 그녀의 여약성女弱性은 사나이를 벽 쪽으로 돌리게 했듯이 (탁탁탁!), 거의 모든 폐품청소廢品清掃을 하나니, 선왕宣王 황금 시대에서부터 비록 그녀가 드물게 청소를 그러나 좀처럼 그리하여 그녀의 솔직한 진술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80】 거기에는 저 오랜 당시의 묘지도墓地都의 밤에 어떤 채석포장採石鋪裝의 대피로待避路도 없는지라, 있다면 단지 한 개의 족도足道, 거대巨大 브라이안트의 방축 길로서, 꼬리 풀, 흰 클로버 및 수풀이 알고 있는 팽이 풀로 접

경接境되어 있었으니, 그 곳은 원고原告가 피격되어, 얻어맞은 채, 그곳을 떠났는 바, 그녀는 청소부들이 마땅히 그래야 할 청소부로서, 그녀의 오물더미를 피닉스 공원의 사문석蛇紋石 (당시 미천美泉의 성소聖所로 불리었으나, 뒤에 페트의 정화장淨化場으로 무세례霧洗禮되었는지라) 근처에 내려 놓았나니, 도살자 숲으로 둘러 싸인 저 위험 들판은 봉화자烽火者 오오 발화發火가 성城 청동오리와 미치광이 난타전에 종사했는지라 그리하여 아아아 궁술가 주접은 무법자를 위한 곳으로, 그 근처의 일대는 화석 발자국, 신발자국, 손가락 도장, 팔꿈치 우물, 궁둥이 우물 기타 등등이 최대한의 진화적 서술을 온통 연속적으로 잔적殘迹하고 있었다. 뇌신남雷神男의 낙인수烙印手로부터 한 권의 책 또는 상실喪失의 것으로 그녀의 것으로, 모신母神에 대한 욕정을 갈망하는 연애편지를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 이러한 늑대배(腹)의 군야영軍野營 텐트보다 더한, 소란이 종로되었을 당시보다 더한, 경주가 시작되었던 이 곳보다 더한, 부계富界의 정교한 장소가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프로메테우스의 원려遠慮의 네 개의 손들에 의하여 화해의 최초의 아기가 흙 스위트 대지의 그의 최후의 요람 속에 놓여졌도다. 그걸 날라요! 그리고 이제 그만! 그리하여 아이를 위하여 막대를 찢러요! 오 멘(인간이여)! 왜고하니 들으리로다 모든 지고자至高者가 선전宣傳 교황권 신자들을 위한 듯 크리스니안들을 위하여 말했나니, 그리하여 그의 혼례의 독수리들이 포획捕獲의 부리를 날카롭게 했도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형태 인간은, 사과 하나씩 차례로, 이 단지 속으로 도로 떨어지나니: 있던 대로 있게 하라, 그는 말하도다! 그리하여 그것은 마치 거기 힌두 화신火神 아그니가 홍염紅焰하고 페르샤의 광신光神미스라가 포고布告하고 힌두의 파괴신 쉬바가 환상幻像들인 양 살해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노아 시대의 기억의 망각의 홍수는 물러가듯 했나니. 순종의 방주方舟마냥 꼬불꼬불하게, 어떤 급분류急奔流의 목재공木材工 화승火僧, 부채 사제司祭에게로, 조브 신이 도망하는 산림 속에 놓인 불을 밝혔던 바람의 구획에로, 그의 조야한 말(言)을 쫓아. 해신 포세이돈의 파동자波動者! 저 혈석血石을 있는 그대로 셋어요! 그대 무엇을 하고 있는고, 이 불결한 왈가닥 그리고 그의 커다란 나무덩이가 그대의 길을 훨씬 높이 가로막고 있는 대두? 성큼 성큼 땀들아요, 그대, 승원僧院의 뒤쪽으로! 그리고, 그대, 저 나무통을 그대가 가져온 곳으로 되돌려 줘요, 맥 사인 맥으로, 그리하여 그대의 늙은이가 갔던 길을 가요, 부화매장도孵化埋葬道 말이야! 그리하여 쟁장! 모두들 세차게 분출하다니, 엽전 내기

들, 전교생의 급한 여행이라, 그들의 허리띠를 그들 뒤에 나풀나풀 휘날리며, 모두 작은 귀여운 꼬마들! 이세랑차프르!어느 루칸이든, 제발?

【81】 그래요, 불가시성이 불가침이라면 인접자의 인육성人育性.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감상感傷 티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로다. 모든 흙탕 부지 敷地를 보란 말이오! 고도로古道路야! 만일 이것이 한니발의 보도步道라면 그것은 헤르클레스의 작업이지. 그리하여 수십만의 굶주리며 허기진 자들이 노역奴役한 길이라오. 그 영묘靈廟가 우리들 위에 놓여있고 (오 만인의 부父, 지가스 거인 이어!) 그리하여 브라함과 안톤 헬메스가 통과하는 전차궤도를 따라 단층斷層을 이룬 그들의 십만 환영의 이정표가 있나니! 합승 버스에 의해 무극세속無極世俗의 경탄탐색驚歎探索이라. 전속력으로. 그러하나 과거가 우리에게 이 여로旅路를 현장現贈했도다. 그러니 여기가 오코넬 가街! 비록 우은雨隱일지라도, 그대는 비피鼻皮로다. 그리하여 만일 그이가 로미오가 아니면 그대는 모자를 가리비로 꾸며도 좋아. 성聖 피아클의 성당에서 저기 훨씬 위쪽으로! 정지!

거기 저 저택 곁에, 무지無地로서 이 황폐한 그리고 냉한지점冷寒地点. 그땐 바위투성이의, 지금은 재표면화再表面化되어, 로트릴이 매입하면 루트텔이 매각하는 땅인지라, 브레난의 고갯길 (지금의 말파스 곳?)의 안장鞍裝 속에, 참된 문명으로부터 여러 노리露里 거리의, 그의 꿈의 꼭대기가 그들의 꿈길을 멈추게하는 지역이 아닌, (호우드 언덕! 거기 정상頂上!) 그러나 발틱 지역의 피안조류彼岸潮流가 황토荒土와 이교泥交하고, 염풍鹽風이 홍수와 상교相交하는 곳, 그 곳에 크로포트킨 류類의 공격선수攻擊選手가, 비록 중간 몸집이하이긴 하나 참으로 토착적 답력을 지닌 성격 사이에, 대항자와 교전했나니, 상대방은 그의 다리 이하보다 눈을 더 한층 드러냈는지라, 그를 약탈자로서, 그는 폭우 속에 오글토프또는 어떤 다른 지겨운 놈, 분명히 일백세자一百歲者로 오인誤認했으니, 그와 그 무두종無頭踵의 계란한鷄卵漢은 미케란제로풍風의 유사성을 지녔는지라, 모독적 언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缺意로 자신이 그들의 동심구同心球에 도전하여 그들을 근절하겠노라 그러나 그는 경—칠 비역—자의 목숨을 그로부터 포화砲火하여 비역—자가 그의 경—칠 밤 기도를 말하게 했듯이 멋지게 회개悔改토록 관속에 넣어 주리라, 성 패트릭 언덕 삼창

三唱과 쌍발雙發의 지옥 마리아여 (만인은 성자, 턱수염 여자 또는 유모 남자) 동시에, 멋있게 주먹다짐하여 그로부터 양령羊靈의 일그러진 매에 소리를 자아내도록, 그가 지냈던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 언제나 가구를 부수었던 장방형의 막대기를 성지참聖持參하여, 자신이 상대방에게 지팡이를 들었도다. 변경邊境의 우연사가 선반복先反復되었나니라. 그 쌍자雙者들은 (그들 나포일본日本이 웨링러시아와 교전하는 것인지 또는 레츠키 테너가 부크리 장군과 화해하려고 애쓰는지, 사람은 말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 동안 분명히 짝이 되어 분쟁紛爭했으니, (요람은 포획과 재포획의 법에 따라 차자此者에게 그리고 반대로 타자로부터 동등하게 혼드나니),

【82】 책 창고 주변에서 자유형 레슬링하下에, 자색의 순무 여린 잎이나 스웨덴 무처럼 격투하면서, (성스러운 열정의 성례전聖禮典의 노역勞役이여!) 그리하여 그들의 난투 과정에서 키다리 사내가 자신의 똥단지 창자 배 있는 곳을 열어 애걸하나니, 뭇 기器(휴대용의 증류나선관蒸溜螺旋管의 편리한 용어로서, 3통桶, 2곤甗 및 수병數瓶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쌍방이 주정酒精에 흥미가 있는지라, 우리는 그 진가眞價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아무 말하지 않거니와)를 갖고 있던 난쟁이 사내에게 말하는 도다: 날 내버려두란 말이야, 도둑술꾼아! 난 자넌 잘 알지 못해. 얼마 있다가, 음료를 위한 극점휴식極點休息을 취한 다음, 그 같은 사내(또는 꼭 같은 오금의 다른 보다 젊은 사내)가 아주 난추卵醜의 씹는-턱 능글 웃음을 지으며 욕지거리로 물었도다: 6 빅토리아 15 비둘기를 날치기 당하지 않았던가, 말해 봐, 이 강장자強長者야, 14 불쾌월不快月 전 소매치기한테? 그러자 약간의 더 많은 충돌조롱衝突嘲弄과너끈히 한 시간 정도의 개종改宗의 엄한 시련이 있었는지라 그리하여 이제 원통圓筒 권총 모양의 우덴 주신자主神者(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음 독해의 시초의 편지들에서 옛 친구 네드임을 즉시 알아차려거니와)는 저 침범자로부터 함락했나니, 그리하여 후자는, 저 그리스도 교회 오르간의 저 튜브 속의 저 생쥐를 노리는 저 고양이처럼 꼼짝 달라붙은 채, (근심에 잠긴 구름 소녀의 부상浮像이 리본과 돼지 꼬리를 하고, 그들 머리 위로 가볍고 젊은 매력을 뜨게 했는가?) 그 결과 우호적이 되었나니 그리하여, 자신의 셔츠를 찢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나, 농담과 혹 달린 지팡이를 모두 옆으로 제쳐놓은 채, 자신의 금고의 발명품에, 그들의

상호의 사유권을 확정하는 집념을 가지고, 여전히 꼼짝 않고 달라붙어 있던 그의 교환交換 친구, 혹시 그 순간 몸에 10 파운드 딸랑 금화의 푼돈을 가지고 있는지 몹시도 알고자 하는 것이었으니, 저 우연사偶然事를 계란 썩은 듯 덧 붙여 가로 대, 6 죄수주罪囚週 남짓을 그에게 되갚고자 하는지라, 알겠는가, 그것에서 지난 음유월陰六月 또는 성칠월聖七月의 건본남見本男에게서 뺏은 것 대신에 말이야, 알았는가, 주장主將? 이에 대해 타자他者, 걸식주발乞食周鉢을 가진 빌리, 그에 대하여 지금까지 침묵하고 큰 나무 망치질하고 있던 그는 (왜고하니 그는 주저躊躇를 탁월주의卓越主義까지 날라 가는지라) 오히려 흥미롭게 대답했나니: 제제발 경치게도 자네 놀라서는 안되지, 힐, 실은 우연히도, 난 정직하게 그만한 판돈 따위 갖고 있지 않아 내 몸 어디를 뒤져도 양철 소리 짤랑 돈은 전혀 바로 현재 이 수수간 말이야 그러나 길은 있는 것 같아, 자네가 암시하듯, 때가 크리스마스 계절 또는 유대 휴일인지라 그런데 그건 경칠일이지, 이 봐, 자네로서도

【83】모자점의 3월 토끼 때인지라, 이봐, 나로서, 경충경충 뛰거나 덧 놓거나 하는 사이에 4실링 7펜스 정도는 자네한테 선불하는 것이라네, J.J. 및 S. 술을 사기에 그걸로도 꼭 족하다면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기억의 불꽃이 다시 연소하기 시작했나니 그 때. 심생心生이라! 그러자 경쾌 쾌락의 초풍初風에 위스키 흥분으로 집게벌레의 귀를 쫓긋 세우나니, 이 굶주린 총기 휴대자는, 놀랍게도,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지며 이내 그의 모든 라드 지신脂神 포세나에 맹세하나니, 묘옥墓獄의 가시나무가 자신의 시의屍衣를 초점焦點까지 찢을지라도 그러나 자신은 그에게 언젠가 선善(sun)행行을 행사하고 싶은지라, 그에게 자신의 말을 명심할지니, 오래된 부식들을 깎아내기 위해 (이 말은, 무無니 이체식식의 어휘로서, 선험적先驗的 어근語根을 후험적後驗的 변설辯舌에 공급하는 것이니, 세상의 어떤 어미語味로도 야언어夜言語인지라 그리하여 보다 이전 어떤 생애에 살아졌던 전리품이 누군가가 생각하듯 한 개의 향아리 마냥, 말하자면 뭔가, 불에 태워도 소재에 아무 탈이 없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일랜드 방언에 분명히 당면하여 무식한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생애의 모두冒頭에 허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보기에 한층 더 심하게 기쁨을 주는 듯 그리하여 던 뱅크 점店의 진주모眞珠母와 샴페인을 선미先

味한 뒤 목 씻어 내리나니 그를 그는 탈로트에 있는 적우옥赤牛屋에서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이 예사라 그리하여 이어 링센드에 있는 선녀옥善女屋에 들리고 그런 다음 불룩에 있는 콘웨이 여인숙에 입착入着하니 그리하여, 떨어지기 맨 먼저, 온통 저주스럽게도, 거기 식욕을 가장 둔곤 채, 만복滿腹하여, 장례식葬禮食 혹은 친우락親友樂 소동이라, 다부진 여왕 태일트의 은총, 유언 및 유서에 의한 수량 가數量街의 아담 엔드 이브즈 주정酒亭에서, 나른하게 재언再言했도다: 그대 기절할 남하인南下人! 난 그대가 어디 있는지 알고자 하네, 낙오자여, 생명의 어휘語彙가 있든없든 진실로 자네한테 말하거니와 경칠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대 골분骨粉의 백정놈白丁耆아! 공부랄 난 밤의 이 일광日光 사만死晩의 밤에 깜짝 당했다네, 아이고! 모자에 맹세코, 이런, 그대는 어떤 뽀내는 독일 왕모래(당력)를 지녔군, 일몰日沒 거지같으니! 그는 주먹에 침을 뱉었도다(부입弁入). 그는 생선주 生善酒를 한껏 들이켰도다(실례). 그는 이쑤시개를 쑤셨도다(기분최고). 그리하여 그는 우별友別했나니라. 그리하여, 프랑스 암탉 또는 조금躁急과 여가餘暇의 가금家禽 손가방을 들고, 그것을 계속할 듯, 그 기이한 혼제混劑는 같은 가슴의 형제 사이에 행사行事되는 포옹의 친구례親口禮 혹은 발진發疹의 입 마춤을 교환했나니, 구드레루야, 살殺레루야, 흘惚레루야, 그리하여, 축소 자들이 코낙 조약화條約化를 쉬말칼디쉬어 조약으로 경칭輕稱했던 휴폭조약休爆條約을 일신日神 앞에 비준한 다음, 그의 메나 이 해협의

[84] 얼굴을 모스크 방향으로 돌리며, 그는 우선 몇 마디 알라 신神과 만세 후레이쉬이를 방구防口했나니 그리하여 관상管狀조직의 최고 환회로서 황소의 달림으로 나귀등 交橋를 건너 도망쳤나니, 이빨 침을 나무뿌리에 뱉으면서, 데인 세稅 7실링 4펜스와 그들의 체액성體液性的 타구봉 打毬棒 또는 생명수生命樹의, 그러나 터보간 썰매의 선미루船尾樓를 언제나 상기시키는 다른 분명치 않은 무기와 함께, 피어리지와 리틀혼(小角) 사이의 어딘가 리알토 대리석 交橋에서 어떤 적대자와 어떤 까마귀의 깃털 뜯기 시간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날 의지를 품었나니, 한편 이 가련한 낙오자는, 저 동맹同盟 방벽자防壁者和 함께 뒤에 남겨진 자者요, 비록 황소 허세虛勢 부리는 자이긴 하나, 아서라 척추골미脊椎骨尾의 손상에 덧붙여, 전신全身에,정수正數의 자두 크기 타박상

사태沙汰를 너무나도 신통하게 버티었나니, 이 발생事發生事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했는지라, 전체 경찰 감식鑑識이 소스라쳐 놀라게도, 오다피 각하에 대해서처럼 애란국기愛蘭國旗에 군례軍禮하면서, 그리하여 그가 품은 정당한 희망이란, 그들의 협상의 거대한 만족적滿足의 결론柱結論柱와 이후파생적以後派生的 신사협정紳士協定에 대한 고상高尚 로마인다운 재조사 속에, 양귀비머리의 어떤 세제洗劑 또는 발효액醱酵液이 비커 골목길의 가장 가까운 파수막에서, 세세부분細細部分까지 총종두적總種痘의으로 제시되기를 바라는 바라, 그의 얼굴의 백지白地는 자신의 성격의 심각성의 확증으로서 대각선으로 적십자된 비태아적非胎兒의 포유동물의 피로서 온통 덮여져 있었으니 그리하여 더군다나 그는 자기도전自己挑戰 속에 콧구멍, 입술, 귀바깥 날개 및 입천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나니 (멈추게 하라!), 한편 그의 멧쟁이 머리에서 모자광帽子狂의 약간의 머리카락이 콜트식 자동 권총에 의하여 뽑혀져 있었나니, 비록 그렇잖으면 그의 총체적 건강은 중용中庸처럼 보였는지라, 최고의 행운으로 입증되다시피 그의 상처 입은 몸통 속에 206개의 뼈와 501개의 근육 중 하나도 그녀의 강타強打에도 전혀 상마傷馬되지 않았도다. 그녀 누구?

이제 그러자, 재(灰)와 부딪치게 하는 것은 그만 두고, 완력腕力과 근육 그리고 낯색제(製)가 토생물土生物을 추방하고 암수정암水晶이 운모雲母를 분쇄케 하여 그러나 벌레처럼 점진적으로 꾸물꾸물 우리들의 퇴적堆積跡을 찾아 제방과 더불어 석石에서 여러 마일 떨어진 모해母海를 향해 뒤쪽으로 기어가 다니(올림피아 대축제에서 심지어 제11대 왕조까지 저 불결 구역질나는 햄소웃에 다다르기 위해), 그리하여 관통貫通 화로망火爐網과 허튼 술책의 방화대防火帶를 개골자皆骨者가 불법으로 획득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의 조부祖父의 정치적 경향 및 도시 추적의 여전히 한층 더한 현저한 특징이 갑자기 노정露되다니, 엘 데 더넬리 경卿, (그의 배가 강의 병저瓶底의 굵은 막대가 되고 모든 그의 순양

【85】 함巡洋艦들이 바다의 암장暗葬 속에 있게 하소서!) 그 자者는, 그 때 그대의 발톱의 암흑 내에서, 이와, 초계정병哨戒艇兵의 한 놈에 의하여 잘못 매복埋伏되다니, 그리하여 즉석에서 케이 오 될 것이 전혀 문제없을 만큼 가까

이 그 때 배 밧줄 피터와 함께 그 위그노 교도의 야유자擲揄者는 그를 구멍에 처넣기를 바랐으니, 순항巡航에 의하여 평화적 신민臣民의 기초적이요 불가침의 자유의 제일을 한결같이 행사하고 있었는지라 (영국인이 되라, 그대의 복골腹骨까지 동아리들아 그리하여 귀우貴友에게 기회를 기부하라!) 마차, 자전거에, 보행자에 개방된, 우리들의 비금지非禁止된 반半묘지 잔디 도道, 웨링턴 공원 道道, 그의 거드랑 아래 비절후종飛節後腫과퀘이커 교도의 가짜 엉터리 특효약을 바른 채 그리하여 그의 적수赤手에 등산 지팡이를 들고, 높이 추천할 만한 운동, 혹은, 우리들의 평민 합법행위 매일기록의 제2번, 대중의 의자에 앉을 찰라 (의지의 사나이를 방해하는 것을 경계하라!), 말(무엇)하자면, 바로 바트 교橋 곁에, 흑소교黑沼橋들 가운데 가장 동쪽으로 (그러나 모두 서쪽으로 향하도다!), 대중의 항의와 자연악自然惡으로서, 게다가 타인을 괴롭힐 의향없이, 원노별이怨怒別離의 나무비둘기와 공포에 질린 보아왕뱀에게 감사하게도 신선神善찬양할지니 그리하여 가일층 모두 어김없이 즐겨했나니, 그는 실지로 그랬거니와, 타인들의 풍향風向을 지녔나니라. 그러나 대서양과 페니시아 고유지固有地로 되돌아 가노니. 마치 그것이 누구에게도 충분하지 않은 것 마냥, 그러나 약간의 진항進航 속도가, 만일 있다면, 범죄라고는 할 수 없는 수수께끼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루어졌나니, 타르 및 깃털 산업과 오랜 그리고 명예롭게 연관된 마님의 자子, 웨스티 킹, 그는 어떤 오명汚名의 밀주제조 지역의 심장부에 있는 색슨인들의 오랜 혼지混地 메이요에서 연설을 했나니, 그 결과 마르스 신역神歷 3월 초하루에 고古 배일리 재판소에 구인拘引되었는지라, 양兩 소인訴因의 전혀 부적절하게 꾸며진 기소장 하下到 (각자의 주야평분晝夜平分時의 견지에서, 차자此者의 유약幽藥은 타자他者의 독약인지라), 다시 보거니와, 그의 가슴만이 작업복으로부터 나무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그리하여 전야戰野에서 그의 군세軍勢 사이에 조분造糞하면서. 개정開廷!, 개정! 죄수는, 메틸 알콜에 잠긴 채, 불음不飲 피고석에 나타났나니, 명특허明特許롭게도 신산화神礬化되어, 커스의 코르덴 만화 얼굴처럼, 얼룩 그 밖에, 찌든 곳 그리고 형견 조각, 그의 야전夜戰 셔츠, 짙 바지 멜빵, 스웨터 및 순경의 허수아비 바지를 입고, 모두 진짜와 어긋나게 (그 자신이 투옥시投獄時에 일부러 그의 웨일스 만 섬(島) 제製の 맞춤복을 온통 찢어버렸는지라), 애란 왕실 어휘의 모든 류화회어流花稀語를

【86】가지고 그의 배제권排除權을 위하여 증언했나니, 그가 자기세포에 불을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 전체 완충주연백발緩衝酒宴白髮제비 놈의 피에 조 압전기壓電氣 쇠기름 고소告訴와 모든 화산구리의 유황염이 어떻게 하여 이브에 끼친 명반明礬의 수정화水晶化마냥 석영石英처럼 설명불가 할 정도로 그로부터 떨어졌는지, (충실상充實上, 그는 고냉古冷 우주雨酒를 두려워했는지라 자신이 맥아麥芽의 들통을 위하여 나신裸身이 된 것을 발견하자 똑똑 떨어지게 하고 있었나니) 왕관 재판소 (경찰 순경 로봇)에 의한 시도試圖에 의하여 드러난 바, 일명 쇠 지레, 한 때 메레키로 알려진 킹(왕)이, 한 기어오르는 소년으로 의인화 擬人化되어, 약간의 성합상자聖盒箱子の 무슨 윤활유같은 이탄泥炭습지의 진흙을 자신의 얼굴, 뺨과 입 위에 문질러 발랐나니, 자신의 변장變裝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청명淸明터브를 가지고, 그리하여 어느 목뇌일木雷日의 이채泥砦의 중백급中白級 돈시장豚市場, 순결 피터와 막대기 포울의 제흥祭興을 향했나니, 전화흥미本電話興味本으로부터 자신과 소돈小豚 안토니오에 의해 따른 타이킹페스트와 지레 쇠의 위가명僞假名하에, 소문에 의하면 순종 돼지(무면허의)와 하야신스와 더불어 말쑤이야. 그들은 애란 999년의 평원 결의 저 바다 위에 있었나니 그리하여 그들은 결코 탁 소리를 내어 양보하지도 않았거니와 규칙적인 손바닥 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니,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둘 그리고 하나의 미세微細한 자신들을, 낙타와 당나귀, 회수灰鬚와 젓먹이, 승정僧正과 걸인乞人, 모부인母婦人과 논다니 아씨들 사이에, 진흙 폭풍의 한복판으로 상륙시켰던 것이니라. 아일랜드의 영농선후목장조직체英農先後牧場組織體에 의하여 소집되어, 아일랜드의 돼지로 하여금 자신의 형兄을 얼굴에 덴마크 인처럼 보이도록 도우려는, 그 모임은 래리에게 감사하게도 다수 참석했나니, 기독교인들과 유태인의 토텔상像들로 구성되어, 대홍수에 가구家拘라, 분명히 산만한 것이었는지라, 그는 어떤 문가門街에서 몇몇 돈내기시합 닭싸움을 통하여 수탉 걷기를 시킨 다음, 지겨운 닭 놀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자, 그 여女동행료 수급원이 그 신사 지방세 납부자에게 팔아 버렸나니, 그 이유인 즉 그녀, 프란시스의 누이, 말하자면, 트로이 현장인, 싸움 가街에서, 그의 (그 짐승의) 돼지우리 전면全面을 몽땅 먹어치웠기 때문이라, 그 자의 6더블론 15 지불 잔금, 잔소리꾼이 아닌 악당 놈의 임대료를, 셋 이든 짝 이든 간에, 갚아버리기 위함이었도다. 두드러진 증거가 이비인후과 증인에 의하여, 이내, 제출되었는 바, 그 자를 웨슬린 교회 신자들은 의구역醫區域, 영영

霏霏 번지에 주거하는, 평복 승정 W.P.가 아닌가 의심하거니와, 그 자는, 자신의 쌀과 평화녹두平和綠豆의 가리개 원반을 벗자마자 그리하여 엄하게 심문 받는 동안 하품하는 것을언짱게도 경고 받자, 미소를 짓었나니 (그는 당일 아침 암사슴 물

【87】 부인과 이별주의 한잔 만배滿杯를 가졌던 터라) 그리하여 자신의 유도인 誘導人에게 북구인北歐人 콧수염 말투로 진술하나니 (꿀꺽!) 자기는 어떤 선의인善意人과 함께 잠을 잤나니, 거기서 11월의 오염汚染을 기억하고픈지라, 모자를 당기며, 오 소동을 피우며, 그 날이야말로, 쥬노의 가절佳節과 정겨운 지난날의 날짜와 함께, 우조신雨造神의 뜻이라면, 장식織裝飾織(금일), 뇌살腦殺(작일) 및 병동病棟(내일)과 함께 하나가 되는, 세속사世俗史의 하루살이 충蟲들 속에 영락零落하리니, 그리하여 한 가지 더, 즉 그것은 샘, 그이 및 모화트(탄산분기인炭山噴氣人)와 같은 심하게 시련받은 관찰력을 지닌 사람을 도육屠肉하게도 감명感銘케 하려니와, 비록 그들이 이유를 댈 것은 아니나, 그것에 대한 두드러진 일은 자신의 밤의 시간에, 보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냄새 맡아 부석화父石化하게 된 사실은, 월력月曆에 혼성 이간쟁이요 언어화가畫家로서 서술되어 있는, 문학사 하야신스 오돈넬이 한 시민평화(똥 갈퀴를 위한 게일 촉감)의 몫을 가지고, 아름다운 녹지綠地 위에서 24시의 시간에 단도직입적單刀直入의으로 어떻게 노왕老王의 또 다른 두 사람, 노도질풍怒濤疾風과 노호비탄怒號悲嘆 2세를 패부敗負, 패배敗北, 패자敗刺코자 했는지 (도취자跳醉者의 우전성牛戰性이라!), 쌍왕雙王은 바뀐 아이들, 비성非聖 누가된 채, 무주소無住所의 그리하여 전달불능 속에, 그 자와 그들 사이, 루이스 협약 전의 강타強打 이래, 황소에 대한 보아 곰의 침략 전쟁戰爭터에 존재했던 적혈敵血, 또는 그가 자신의 북극곰 털을 두 갈래로 초분初分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소품소설小品小說에서 식당 여 종업원을 놓고 포도호행葡萄狐行했거나 매뚜기 군식群食을 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실수失手(미스)라고 들은 것을 미스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병어리와 귀머거리). 그 소송자들은, 그가 말한 바, 지방地方의 회자喜者들이요 용자勇者들이며, 아란 섬과 달키 연안의 왕들, 이도 泥島와 토리 섬의 왕들, 심지어 킬물그린의 목양왕牧羊王인지라, 카르타코 당근의 적색赤色の 활(弓) 강모強毛를 지니고, 이조드의 탐 꼭대기로

부터 분홍의 하의下衣를 흔들며 소리치는 신나는 여인들의 모양을 한 그들의 지지자들에 의하여 선동되었던 것이로다. 법정의 조밀석稠密席에서 그리고 보허나브리나 도회의 더블린 사내들로부터 부르짖음이 있었다: 바나가허 출신의 토박이를 유의해요, 아일랜드 인이여, 이 봐요! 오도노를 석방해요. 그래요! 그의 유품을 증거로 제시해요! 부! 혀를 더 쓰란 말이야! 입을 덜 비죽이요! 사자死者의 암경법정暗景法廷에서 안면결화顔面硬化된 시증인試證人의 반대 심문을 통하여, 도야중刀夜中の 도야刀夜의 때와 곳 저 삼자간三子間的 매복埋伏이 꾸며진 사실이 새나오다니(대충 입부루똥 말하건대, 워터호스의 중간中干 유럽 시간에 의하면, 새벽의 어둠 사이 반시간 전후, 정지停止와 사고思考

【88】가까이, 사방상록四方常綠 고주지高主地 그리고 총고總古의 땅에서 단지 한 그루의 윤락사과나무), 과부월寡婦月로부터 아이의 제단을 호리게 할 정도의 빛만큼도 비치지 않았다. 혼합인은, 따라서, 통명스럽게 말을 꺼내 받았나니, 그리하여 그 위에 최고의 바젤 저음으로, 자신은 가청적可聽의-가시적可視的-가영지적可靈知的-가식적可食的 세계가 그를 위해 존재하는 저 행운의 수탉들 중의 하나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그는 단지 너무나 동지적同知的으로 동족적同族的으로 동고적同考的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는지라, 그 이유인즉, 사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숨쉬는 것이 총형태음악적창조總形態音樂的創造하는지라, 마치 그가, 자신이 종을 쟁그랑쟁그랑쟁그랑쟁그랑 울리도록 한 것을 그가 생각하고 그가 듣고 그가 보고 그가 느꼈을 때마다, 가장 의미심장하게 행동하듯 했도다. 그는 바로 왕이요 작업복인作業服人의 직무에 있어서 자신의 귀(耳)의 거짓이나 진위眞僞를 또한 실질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던가 어떤가? 그는 이(風)에 전염되어 그렇게 했도다. 확증되어? 천격자賤格者로서 있을 수 있는. 거짓 잠자고 있는거다! 혼자 외로이, 걸세. 그건 누군가의 병적病的인? 정말. 수요水曜의 자식? 수혼水婚의 호색가. 그리하여 어찌 저 녹안자綠眼者가 문학사(B.A.)에 도달했던가? 그것이 녀석의 성적두成績頭 같아. 강갈색強褐色의 어색한 눈, 홍화뽕花의 엉덩 귀, 나팔총부리의 코 및 믿을 수 없는 입을 가진 뒤틀린 뺨이? 당연히 그러하리라. 사육死肉이 식탁에 차려질 때 10야드 가득한 접시에 매여있는 그대를 누가 씹을 수 있으리오? 왼쪽 오른쪽에. 어떤 중요 음용飲用 우물 역시? 흑주黑酒. 그리고 공중제비 비둘기 다리를 하

고, 재천명再闡名의 H엘밍함 E배갯머리 R우터 E그버트 왕 C롭월 O던 M아씨 머스 E스메 S에썬인 E사아 V게일 추장 E북구왕北歐王 R우퍼렉트 Y와라 B언틀리 O스먼드 D이사트 Y북구세목北歐世木? 성스러운 성인 에펠에 맹세코, 진짜 불사조여! 수선일 水仙日과 병어리 장면 사이에 있었던 것은 차드의 마그 놀이었던가? 두 아이의 탐정이 그의 황소의 모습에 갑작 놀랐으나 그의 바위의 갈라짐은 일시 몸을 웅크린 세 사악한 벤쿠버인의 삼림森林 때문이었음이, 그대는 확실한가? 틀림없다니까, 자아 자네! 그리하여 그는 북구우족北歐牛族의 의회 의원 중의 하나가, 응 어때? 그리하여 그가 박애의 샘에 의하여 재생되어, 거기—있다네—하나의—고통—통의 술의 땅이—를 연주하고 있었던가? 에드워드경卿의 상실과 분수噴水 외과의 필립 경卿의 결여는 포터랜드의 상찬賞讚 속에 다섯 램프에서부터 더 많은 팔팔 물소리의 거품을 빨아들일 수 있었도다. 비틀거리는 일리엄과 암말 마리아. 그것을 듣지 않고, 흑지黑池에서 자신의 엽시葉時를 씻어 내리며. 그러나, 물론, 그럴 시간이 있다면, 그는 자신을 템(창조자)으로, 역시, 부를 수 있으렸다. 기필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으리로다. 그가 기뻐할 때? 승리와 순위.

【89】엿듣는 말에 유혹되어, 마찬가지로 증인이기도 한 마부에게 대항하는 화부火夫人가? 신성한 화신이며, 경칠 도대체 어떻게 하여 그들은 그걸 추측했단가! 하나의 범선帆船 속 두 가지 남남 꿈인가? 맞았어 그리고 무과오無過誤야. 그리하여 양쪽은 편두扁豆의 결투처럼 다했는가? 두명豆明하게도. 그런고로 그는 대중으로부터 쫓겨났어, 그렇지? 힘은 그 자신이었지. 왕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가? 뭘 기대하고! 노서인露西人 동료인가? 머지않아 골웨이인이 될 거라 생각해. 술 취해 있지는 않지, 공평한 증인? 승어僧魚처럼 술 취해 있군. 토연吐煙해도 그녀가 상관하지 않을지 물어 봤는가? 그가 불 가래(痰)를 불 살리지 않는 한 상관없지. 자신의 만배滿杯에 대한 자신의 분출탄噴出歎에 대해서, 뭐라? 그건 물론 다시 조잡粗雜과 조악粗惡의 조행粗行이었지. 그 우아양優雅讓은 여우길 위의 노랑이 왓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의심할 바 없이 감지했겠다? 그녀는 그랬어, 언제나, 대의大疑치 않았지! 그의 종교에 관해서, 만일 뭔가? 그건 일요일에 봄시다하는 따위였지. 정확히 그가 의미하는 남색男色꾼 도둑이란? 야곱에 맹세코, 바로 사순

절 기도를 한 사이비 신사지. 그리하여 만일 중급中級の 포도주 탐음자貪飲者가 일상日常의 짐승이라면? 밤에, 빈털터리 사내에게 구토처럼 유익하지. 만일 그가 그들의 군법 소의沼議를 인식했다라면? 나날의 그 날은 그에게 그저 그랬었지. 런던데리, 코크 및 스킬리, 문門(gate)없이 “gart”의 철자를 어떻게 쓰나? 추호도. 목초권牧草權(마님, 규율부인)은 산양의 종부種父의 만료(죽음)와 더불어 만료되지 않았던가, 만일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는 정확하게 신앙 숭배자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섬금류조涉禽類鳥의 양모養母가 관棺의 가격 영수증을 지고 있었으며 그녀 자신이 그들에게 새끼고양이 반신半身 소형 초상화를 말할 수 있었던 구형舊形 자전거였음을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도다. 파운드 인인의 턱 뺨 속의 토스카나 식式 설어舌語를? 전나 팔음 前喇叭音의 모제母題에 관한 부父의 후명後命. 배분配分 중점? 그리하여 우리는 재권再勸하나니. 왜 산양인가? 무답 無答이라. 그대 어디에서 급히...? 무無라, 아하. 그대는 화산의 년단年端에서 현혹眩惑舞하고 있지 않은가? 서경西卿, 나는 과연 그러하오. 그리하여 그는 얼마나 나이 먹었는? 그는 팔리어의 연구에 의독意督했으니. 두 획劃의 사필寫筆로 된 것은 오점 문자의 매듭실 장식 아니면 편의 삼모형三帽型의 사다리다리型 중 어느 의미였던가? 지표면地表面의 덩불 아래의 퇴절두腿節頭는 히스의 황야를 통하여 물방아 도랑까지 뱀을 미끼로 피리라. 팔a 새b 색소c 지화指話 문자d 인종e 요새f 필경? 확실한 그리고 사람을 편리한 조탈프손과 마찬가지로. 가짜 이아쑈, 그리고, 돼지 새끼를 거위로? 교황의 명령에 따라, 고양이 꼬리처럼 확실하게. 이거 참 놀라운 일? 진짜로 사실 같은 이야기. 그러나, 왜 이러한 요술회룡이 그리고 언

【90】제부터 이러한 제2의 음률이, 쑤이셴(孫逸仙)(쑨원, 孫文)? 그는 평화 단의 짐승겹질 바지를 입고 땅에 머리 조아려 고두叩頭를 했도다. 그리하여 저 태양자매들은, 우열도박優劣賭博에 도발挑發하면서, 노동당 작가로부터 상찬賞讚을 받았던가? 어중이떠중이를 불쾌추방不快追放하다니, 경기를 크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하여, 매판원들을 임금의 머리에서 공화당의 팔로 변경하면서, 시부時父의 둔부를 둘러싼성교서광기性交瑞光期와 파종내우播種來雨의 우기雨期 동안에, 기강마주시旗降馬走時로부터 경마 계시전도박揭示前賭博까지, 측활성測滑星 및 조풍朝風, 와승渦昇(와인드업)과 함께 야기된, 그

호전성好戰性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은 당시 그에게 호소했는가? 그것은 브레이 언덕 일대의 야화野火였었다. 믹크마이클의 칼이 천막창공을 꿰뚫고 공포의 아우성을 지르며 그리하여 네카니콜라스 악마의 빵구이포크가 다랑어의 부레를 갈래 날로 찌르나니. 싸움이 있게 하라? 그리하여 있었도다. 연무전煙霧戰. 천사의 자리에서, 그대는 말했는가? 에다의 긴나거 골짜기, 라고 그는 말했도다. 그 자들이 말한 것 그리고 영겁永劫사이의. 그럼, 북구신北歐神 이승의 한 북판에서? 그들은 그것을 손 대서는 안되지. 그 열애熱愛의 쌍變은 한 사람 또는 둘, 농신산農神山的 족항足港의 불우계급의 일에 종사하는 단지 두 실망한 여간청子女懇請者였던가? 그래서 그것이 그에 관한 모두, 여호와여! 그리하여 그 때 문지기 카메루스가 다른 가메루스에게 말했나니: 그대를 웅당 알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지. 그리하여 가메루스가 카메루스에게 말했나니: 그래, 그대의 형제이니까? 여부가 있었으려고. 만일 그것이 그렇다면, 말도 안되잖아? 그리하여 그것과 다른 것에 관하여. 만일 그 자가 벽壁의 전혈全穴에 관하여 암시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건 그가 여인의 전체全體로부터 회피하고 있을 때 그런 거야. 요약컨대, 어떻게 하여 이러한 만사시萬事始가 마침내 그에게 당장 타격을 가했는가? 다종多種판함의 은행을 파괴한 날카로운 소리(툼)처럼. 그는 모두가 의미하는 바를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만일 그가 그랬다고 가정하면 저주스런 일이지. 도마, 도리스, 소아, 톰? 숏 노루왕국의 역질疫疾의 강패 같으니. 초하제超話題의? 그리하여 아인간적亞人間的. 만일 그렇다면, 야프형型 소란騷亂 언어로,악크 악자惡子?오오! 아아! 만성비인후慢性鼻咽喉의 안이염증眼耳炎症이라, 삼일열적三日熱의으로 말하건대, 잘못이라고? 충격적! 이를테면 모모 그자체퍼스 우리들의 진짜오레일리 그가 그럴 수도, 그가 그렇지 않을 수도, 그가 그날 밤 결코 않을 수도? 목진木眞짜로 그리고 원참園斬말로. 창녀녀갈보녀년오입쟁이이사창가가매춘부부음탕녀녀매춘녀녀매음녀녀우상승배자차청루굴인인靑樓婦人경칠칠지독한한부랄녀녀, 어때? 맞았어.

매음한 분춘부糞春婦! 그러하나 새로운 국면이 문제에 봉착했나니, 그 대당혹스럽게도 비유죄선고적 제판관석을 향해 (그 위에 카르타고 불신판不信判이 형벌법刑罰法과 겨루었도다) 모두의 고령왕高齡王, 말뚝박이

【91】페스터, 치장벽토돈治裝壁土豚의 외층外層이 몇몇 활발한 배심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벗겨지자마자, 자신의 맹세한 브리톤의 통역을 통하여, 아주 즐거운 코로스마스를 위한 행복의 기원과 함께 정말이지 가슴으로, 시정詩情의 광폭발廣爆發의 목소리로 선언했나니, 한편 유의하건대, 공원의 식용 돼지들의 공주公主 크리오파트릭(암돼지)에 의해 탐식貪食당한 이야기 소년의 유골에 맹세코, 하느님과 모든 그들의 명예 그리고 왕의 재판소 앞에, 던달간의 계층 또는 다른 어떤 계층에 맹세하고자 하는 바, 비록 살아있는 칠면조가 자신을 뒤쫓아 다닌다해도 거기에는 확실히 절도竊盜가 없었으며,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눈(眼) 차고 귀 큰 집게벌레의 코 심심쟁이의 창자 인후로부터 퇴적된 것,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후에도 그리고 그 시각까지 돌을 폭발爆發하지 않았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크아더에 관하여 이야기할 지도 모르며 또는 그들이 인접노당隣接勞黨에 가입하거나 그리고 그들이 일월신국日月神國까지 계속 걸을지도 모르는지라 부수적 일로 간주하면서, 바로 이 결정적 타격打擊 논쟁자는 그의 외향外向의 복동풍을 타고 목을 활처럼 구부려 머리에 양도하고 방금 씻은 나안성裸顔性과 함께, 월광月光의 희망과 나란히, 진독자唇讀者에게 항변함으로써, 꼭 같은 왕의 교황절대주의 반대법 속에, 그가, 향소원 판사 일동이며, 왜 더블린을 떠났는지에 관하여 저 타당한 이유를 그동안 내내 여러 해 동안 연구年究해오던 수석 재판관 나리 및 배심원 신사들 및 사대가四大家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다시 말해, 불멸의 일배수一杯水가 숙명을 법전法典典화하나니, 이니스 도인島人은 어느 관동육인關東陸人과 매한가지라, 만일 그가 여명黎明의 조조早朝 앞에 시장市場의 불고기로 비명非命한다면, 이 세상 또는 다른 세상 또는 게다가 어느 다른 세상의, 청년靑年 토도土島의 광경이나 혹은 빛을 보는 것을 결코 요구하지 못할지니, 저 순간 그가 거기 도깨비 상자 안에 있듯 진실로, 또는 생주生酒의 무진장의 주연각배酒宴角杯를 휘두르거나 또는 휘감으며 (달잡지 않도다!) 전공戰恐의 발할라 신전神殿의 그의 영웅들과 함께 웅영도자鷹領導자들의 움직이는 길의 불의 미지의 우상神偶像神의 환비비배歡杯悲杯를 행하는 일도, 비록 있다해도 모든 그의 재무생애財務生涯에 있어서 그가 대법판청에 손을 들거나 씻으며, 인간이나, 향사양민鄉士羊民 또는 구세군에게 저 가장 신성하고 모든 축복받는 시간까지 교례敎禮 받기 전이나 아니면 후에도, 한 자루 치명장致命杖이나 일개석一介石을 집거나 던지는 일은 드물리라. 여기, 반슬두半膝頭 성구城丘의 자식놈은 그의 성료聖僚에게 앞발을 쳐들고 로마 신神토릭의 진신眞信仰의 신

호를 하려고 어색하게 시도하자, (아주 좋아요, 예스도여!—그의 흥분 속에 약자若者는 비상非常의 카스티아

[92] 어語를 터트리자, 그 속에 전체 청중은 그를 성가시게 뒤따르며 추종하다니 부패 단지로다) 옥당獄堂의 소유자들로부터 박장대소가 터졌는지라 (하!), 그 속에 매칠 향봉주香蜂酒의 완화緩和 아래, 그 증언발사자證言發射者는 염증스럽게도, 그러나 여느 때의 숙녀다운 무례로서, 합세했도다. (하! 하!)

말뚝 박이(Pegger)의 종료의 들뜬 폭소는 거나한 맥주들이(Wet Pinter)의 그것의 비조悲調과 산뜻하게 경쟁했나니, 마치 그들은 이것과 저것, 상대물相對物의 동등인지라, 자연의 또는 정령精靈의 일동一同의 힘, 피타자彼他者로서, 피자피녀彼子彼女의 계시啓示의 유일한 조건 및 방법으로서 진화되고 그들의 반응의 동장同長에 의한 재결합으로 극화極化되도다. 분명히 상이相異한 것은 그들의 이원숙명二元宿命이었도다. 그에 반하여 바의 여급들, (쌍결雙缺된 삼십三十, 태음력太陰曆數) 그 때 춘화春花들이 무수인어담無數人魚談했나니: 그 자(아우)를 우편집배인으로 보여요(샤운): 그 의지적으로 억압된 자 주변에 퍼덕거리고 아첨했나니, 그를 돈상豚賞에 지명하면서, 그를, 그 매료적魅了的인 청년을, 자신의 주변에 별별別別 감성感性을 지닌 데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그의 곱슬머리를 통하여 하아신스를 냄새 꽃으면서 (오 주酒여! 오 누淚여!) 그리고 그의 뺨에 키스루즈, 그들의 남성적 애란愛蘭 장미(그의 호질好姪의 색상이라!)를 꽃피우며, 그리고 그를 위해 그의 멋진 새 목도리를 목에 감아 매면서 그리고 그의 모직가방을 뽐뽐 훈제식燻製食인양 죄면서, 나 우편집배의 잡색 장식 시중꾼으로 하여금 그들 모든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젊은 아씨들을 믿도록 그리고 그들의 세월 속에 기쁨을 보내도록 그들의 멋진 멋진 캔디 사탕과 더불어, 말쑤이야. 휘멘 축하 여인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참석자들은, 그들의 숭배자들의 주목을 받았나니, 어떻게 하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월자매月姊妹 독신 클럽에 의하여 그를명예훼손(탈脫여인화) 하는 것을 위탁받은 그녀, 한 사랑스럽게 보이는 윤녀閨女, 홀로 홀로 홀로히, 현기증발체야기眩氣症拔萃惹起 구능丘陵의 용담龍膽 보석을, 그가, 자신의 비혼성非混成의 감탄 속에 아연 실색 및 창백한 채, 장님 마냥, 병어리처럼, 맛없이, 무촉감으로, 숙모宿慕로운 척 했는지, 빛나는 교합交合 속에 남상여男上女로서,

그의 자신의 치모恥貌를 그녀의 그녀 것의 가물거리는 미광微光 속으로 변용시키면서, (젊음의, 미남의, 그그는 그녀의 단골 손님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누구집에 쾌행快行할 때 마마마에게 말하리라) 그녀의 아담담雅淡淡의 거친 욕욕망이 가장 음악적으로 그의 샤운 우차郵車의 어두운 심심연深深淵 사이로 용해 될 때까지.

그리하여 마음이 산란한 까닭에 (왜냐하면 그것이 야기하도록 원인이 되었던 것의 결과가 야기하게 한 것의 원인이 되다니, 결과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아니었던가?) 네 최고 사법관들, 운티우스, 먼시우스, 편처스 및 피락쓰, 모두 함께 그들의 가발假髮을 맞대고 집고集考했나니, 그러

【93】 나 우격羽檄 브루노에 대한 그들의 관례적慣例的 평결評決을 공포하는 것 이상의 것은 불가능지라, 그에 이어 킹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영어英語를 살해한 연후에, 그의 포켓을 쏙아내고 그리하여 황급히 텅 빈 호주머니 옷옷 자락을 질질 끌면서, 면죄되어 재판소를 떠났나니, 자기 자신 (글쎄 어찌리요!) 진희眞稀의 신사임을 입증하기 위해 브리저드 성자聖者들에게 검은 형견조각을 그 아래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 말쑤이야. 스위스 호위병의 교황청 관리자 그러나 정리廷吏 같은 자를 향해: 오늘 건강은 어떻소, 고결한 털보 양반? 그 화주애자火酒愛者는 심지어 마상식인馬像食人의 철판품질을 닮은 위장을 바꿔 놓을 정도의 포도주냄새 나는 불굴년륜不屈年輪 적력취무성과열음성赤力臭無聲破裂音聲을 가지고 응답했나니 (우리는 그 자의 일격뇌관一擊雷管, 강세強勢를 준비하고 있었도다, 그러나, 불의의 습격에 대비하여, 이제 우리는 분화구噴火口로부터 분출가스 마냥 그걸 다스리고 있도다!) 그리하여 30세기 2의 모든 옹호여인들은 메아리 속에, 자신들의 짧은 팬츠를 잡아당기면서 전규戰叫했나니: 익살 문사文士(웬) 비켜라!: 안전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저 여성적女性敵의 파리 교구민 새침데기를 축구蹴球했나니, (어찌 감히 그가!) 즉흥적으로 당장 귀가토록, 감사하게도, 성 聖비둘기에 맹세코, 모든 잘못된 여성증여자들에게, 음주전飲酒戰의 음침거옥陰沈居屋에로, 거기 (웬고하니 그대의 진짜 사슴고기 조달자 이소우처럼 그는 친親사슴 마냥 밑바닥으로부터 비둘기수줍어했기에) 그는 그 속에 폐좌閉坐했나니 (동물원이라), 사실 그가 그러하듯 진흙의 통조痛鳥처럼 (보루堡壘), 정조대貞操帶의 미인들이 집규集叫했나

니: 그대 그리고 우리들의 무색의無色衣에 대한 그대의 다변재능多辯才能이라
니! 그리하여 절규했도다: 빨(赤)치恥! 주치朱恥! 노(黃)치恥! 초(綠)치恥! 파
(靑)치恥! 남치藍恥! 보(蘿)치恥라!

그리하여 그것은 모두 그렇게 끝났도다. 아다(雅緒) 칼마(쾌락) 달마(本性)
막사(解脫). 열쇠는 시성詩聖에게 요구해요.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들의 고소告
訴를 들었나니 그리하여 모두들 그들의 갈채喝采를 귀담아 들었도다. 편지! 허
드레 종이! 그리하여 한층 빠르면 더욱 좋으리니! 눈썹 필화筆畵의, 입술 점화
點畵의. 말을 빌리며 질문을 청하며 부딪돌을 흠치며 그리하여 비누 마냥 미끄
러지며. 어두운 로자 골목길에서 한 가닥 한숨과 울음, 방종한 레스비아로부터
그녀의 눈 속의 빛, 외로운 꾸꾸비둘기 바리로부터 그의 노래의 화살, 손 켈리
의 글자 수수께끼로부터 이름에 얼굴 불힘, 나는 살리반이야로부터 저 트럼펫
의 쿵쿵 소리, 고통苦痛하는 더퍼린으로부터 그녀 식의 기다림, 캐슬린 메이
버논으로부터 필경 공정한 노력, 가득 찬 단지 커린으로부터 그의 스카치사랑
의 매크리모毋, 찬송가 작품 2번 필 아들포스로부터 지친 오, 결눈질하는 오,
떠나는 자 사무엘 또는 사랑하는 다무엘로부터 저 유쾌한 늙은 뱡충맛이 할멈
또는 저 싫증나는 빈둥쟁이, 팀 핀 재삼再三의 연약한 부족으로부터 그의 유령
에 대한 힘의 상실, 녹지綠地의 결혼식으로부터 경쾌너들,

【94】 유쾌남들의 사랑의 도피처 그레탄, 팻 멀렌, 톰 말론, 단 멜돈으로부터
멀둔인들에 의한 외호촌外濠村에서 행해진 너저분한 피크닉. 자신의 어리석은
여인에 의하여 구조된 충실한 남편. 불 위의 관가棺家처럼 탁탁우지끈대며. 꼭
대기에서 울먹이는 느티나무가 얻어맞자 신음하는 돌맹이에게 말했도다. 바람
이 그것을 부수었나니. 파도가 그것을 지녔도다. 갈대가 그것에 관해 글 썼나
니. 말구종이 그것을 가지고 달렸도다. 손이 그것을 찢고 전쟁이 거칠어 졌나
니. 암탉이 그것을 시탐試探하고 궁지가 평화를 서약했도다. 그것은 교활로써
접혀지고, 범죄로서 봉인되고, 한 창녀에 의해 단단히 묶여지고, 한 아이에 의
해 풀렸도다. 그것은 인생이었으나 정당했던가? 그것은 자유였으나 예술이었던
가? 언덕 위의 늙은 구두쇠가 그것을 무결완독無缺完讀했도다. 그것은 엄마를
즐겁게 만들었고 자매를 너무나 부끄럽게 그리고 썸으로부터 약간의 얼굴빛을
문질러 없앴나니 샤운에게 약간의 수치를 불어 넣었도다. 하지만 우나와 이다

는한발旱魃에 기근을 철산綴散하고 선목자先牧者 아그리파는 탄왕좌嘆王座 속에 삼중고三重苦를 철자綴字하도다. 아하, 과실果實을 겁내리로다, 겁 많은 다나이드들아! 한 개 사과沙果, 나의 사과, 약자는 여자, 둘에 차(茶), 둘과 둘 그리고 셋, 이니여, 아아 슬프도다! 알몬드 눈을 가진 무화과나무 한 쌍, 한 오래된 과일 딱딱한 호박 그리고 익살맞은 세 개의 모과나무 열매. 그리하여 그것은 어찌 그의 경건한 아들로부터, 한 개의시市가 솟았나니, 편편(지느러미) 편편(재미재미), 도착한 화살. 자 말해요, 내게 말해, 그럼 말해 봐요!

그건 무엇이었지?

아.....!

?.....오!

그러므로 자 봐요 지금 그들이 과거에 거기 있었나니, 그 때 만사는 다시 끝나고, 그들과 더불어 네 사람이, 그들의 판사실에 둘러앉아, 기록 보관실에, 그들의 연방 재판소의, 라리의 의주최하疑主催下에, 법의 그들의 오랜 전통적 테이블 주변에, 마치 다수多數 아데네 소론 입법자들처럼, 모두 동일 사건을 재삼 상담하기 위해. 적절히 그리고 드루이드 성직자인양 금주禁酒한 채. 법의 음주飲酒를 참으며. 킹(王)의 예벌린 증언에 따라. 그녀의 산양에 맹세코 그리하여 책뺨에 키스를. 축제 및 하야신스 및 용담 뿌리 및 그녀의 무우 다리 페티코트 그리하여지금은 십이지장을 잊지 마시라. 그들 네 사람 그리하여 법정 에 감사感謝하니 이제 모두들 사라졌도다. 그러므로 포트 주酒를 위하여 포트(항구)를 통과하다니. 그러할지어다. 아하 저런! 그리고 자네 기억하나, 싱가포르, 성질 고약한 아버지, 저 꼭 같은 자, 뭐라나 하는 위대한 자 말이야, 그리고 그의 옛 별명이라니, 불결한 아빠 늙은 어릿광대, 그의 시장 독점에서, 두 장미 전쟁 그늘에서, 뱃사람의 승정僧正인 승리자 마이클과 함께, 교황으

[95] 로부터 그가 자신의 율법지사면律法紙赦免을 포착하기 전에, 늙은 위威노스 및 요크? 나는 상관하는가? 저 몬 족族의 분출을 무역풍 날의 발리양羊마을의 비료 공장처럼 나는 조심하지. 그리하여 그 아녀阿女 오몰리들과 그 해장미녀海薔薇女 오브리니들이 그를 얼굴이 붉도록 조롱하면서 그리고 빈정대다니. 안녕하세요, 야단법석, 북씨北氏? 날 임신시켜 봐요! 아하 실례! 멍멍 계속해 봐! 진술에 음담淫談 끝 술에 음담 할 때! 정말, 왜 녀석은 백일해百日咳

그리고 죽을 폭음해暴飲咳를 행하는 저 낡은 가스 미터(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를 상관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녀를 뒤쫓아 남쪽의 모든 새들이, 말팔랑이 커닝함, 그들의 친애하는 이혼남 달링, 쇠 지레미 및 불행남 조니 그녀의 기동 서방 되기 위해? 덤병대지 말아요. 우리들의 작은 섬의 코르크에는 세 개의 다른 모퉁이들이 부동하고 있어. 그래 정말, 난 그를 정말 원후遠嗅 할 수 있어, 군구郡區의 숨을 뱃을(움짤 놀라게 할) H2CE3을! 젠장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 게처럼 그를 너무 잘 냄새 맡아요, 참깨로 가득한 그의 레몬처럼 보이는 마대馬袋를 가지고 케이(K) 월(Wall)을 32 대 11로 끌어올리며, 그 백면白面의 카피르 인인, 그리고 녀석의 정액의 방출 그리고 놈의 내도勾塗된 목소리, 그의 천둥치는 큰 갈색의 캐비지를 폭폭 불어내며! 빠! 그의 아빠의 빌어먹을 자식을 위해 기꺼이 구기鷗欺할까 용각鎔覺했지! 멋지군, 녀석이 말한다, 훌쭉 소심자小心者 같으니! 두통거리야, 나는 말한다! 오 산들 바람! 나는 저 애송이를 누구보다 오래 전에 냄새 맡았던 말이야. 그건 내가 서쪽에서 원부遠父하고 있을 때였으니 그녀와 나 자신이 말쑤이야, 그 붉은 머리의 아가씨, 시카모어 골목길 아래 첫날밤 질하며. 멋진 더듬기 놀이를 우린 했었지, 무성림茂盛林의 시원한 천초茜草의 땅거미 속에서 뒹구는 키스 침대에서 말이야. 팜파스 대초원의 나의 향기, 하고 그녀가 말하지요(나를 뜻하며) 그녀의 하광下光을 끄면서 말쑤이야, 그러자 나는 저 큰 양조釀造의 트림과의 친교를 돈후敦厚히 하기 보다 그대의 청결한 산 이슬의 값진 한 묶음을 조만간 가지리로드. 그리하여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했나니, 네 술병 사나이들이, 분석자들이, 기름을 바르듯 그리고 아니야 그리고 다시 활듯, 그녀의 유자전시維者前時 그리고 그의 유소이후維所以後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고사리 속에서 멀리 사라졌던가를 그리고 어떻게 그가 이근耳近 속에 깊이 죽은 채 발견되었던가, 그리하여 바스락 거리는 소리 및 지저귀는 소리 및 빠적거리는 소리 및 찡각하는 소리 및 한숨 소리 및 칠하는 소리 및 쿠쿠우는 소리 및 그(셋사史!) 그 천격이별泉隔離別 소리 및 그 (하거去!) 바이바이 배척 소리 그리고 수녀복修女腹 광장 주변에 그 당시 (쑥) 살거나 잠자리하거나 욕설하거나 말을 타곤 하던 스캔들 조각작들과 순수한 암반인巖盤人들에 대한 그들의 연관사聯關事에 관하여 말쑤이야. 그리 하여 숲 속의 모든 봉우리 새들. 그리하여 웃음 짓는 멍청이. 소문笑聞!

[96] 소문! 소문! 장미는 진암眞暗 속에 하얗도다! 그리하여 태양자太陽者의 코가 녹원鹿園의 곤이鯤鰐 장미를 괴롭혀 비수병鼻愁病에 걸렸도다! 그러므로 모든 악동惡童들이 라임 주운酒韻에 쏘리나니. 그리하여 언덕 위의 백합 트릴 지저귀는 법자法者와 아홉 코르셋 통옷의 널 부인 그리고 그들의 최적부最適父인 노老 마크 왕에 관하여 음주 반박하다니, 그리고, 아하, 용남勇男들과 애장愛裝 경卿, 괴상한 소문와중所聞渦中 경卿, 그리고 교회프리즈드 곁의 오래된 집 사이에 전혀 전혀 보복이 결코 없었음이 확실했나니, 그리하여 그들이 퇴각退却하려 했던 훨씬 이전에 만사萬事가 너무나 탈정도脫正道 한지라, 낚은 구습舊習으로, 그들 네 사람이, 귀여운 속삭이는 신부神父 아래 밀턴 공원 속에 그리하여 그의 젊은 성매녀性魅女와 함께 꽃의 만어漫語로서 사랑을 속삭였나니, 그리하여 그녀가 흐늘흐늘 감상적이 되고 싶은지라, 그리하여 바로 그들 두 사람, 맵시자매들, 내 마음의 귀여운 작은 형제여!, 그리하여 (엿보라!) 가장 부적不適하게 둘이 서로 만나다니 (피피!) 정원을 구순球巡하여, 줄 줄 똑똑 줄줄 3 회廻로, 제발, 이봐요, 장난쳐도 좋아요? 농부들은 신랑과 함께 가버리다니 그리하여 그들은 그녀를 이용利用하고, 그녀를 명용暝用하고, 그녀를 연용戀用하고 그리하여 그녀를 껴 안았도다. 난 당신과 의견이 다르니!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있소?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용서하구려! 난 그렇지 못해 그리고 당신은 달라! 그리고 랄리가 그들을 위하여 치안 방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울혈鬱血로 축 늘어진 물리! 주고받고 호양互讓이요! 그리고 과거로 선행先行하는 거요! 그리고 만사를 잊읍시다! 아 저런! 그녀의 친절 페팅과 0000000000량의 그리운 옛 시절의 형태에 대하여 다투다니 그것 너무 지나쳐요. 그럼, 좋아, 랠리. 그럼 악수. 그리고 더 부어요. 암반인巖盤人들을 위하여. 그렇다면 좋아.

글쎄?

글쎄, 이러한 가공적 단편들을 증거순으로 조작하는 일이 진실된 진리로 밝히기에 심지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떤 회미한 선각자의 별 그림의 설계가 흑시(하늘이여 그를 도우소서!) 청야靑野에 미지체未知體의 나성裸性을 뜻밖에 노정露呈할지 모르듯, 또는 모든 인류의 혈족 언어가 어떤 만화자漫畫者의 말더듬 버릇의 뿌리에서부터 거대巨大하게 발전되는 모든 최건전적最健全的 의미를전청적前廳的으로엽상화葉狀化했듯이 (땅이여 그들을 불드소서!), 우리들의 특수한 정신 전문가들이 방금 주장하는바, (세계의 판단은 안전하나

니) 이렇게 시치미를 댄으로써, 우리들의 성자연聖者然의 경적卿의 조상祖上은 그의 자손, 매력적인 공동 상속인들인 그대, 그의 자유 소유 재산의 상속자인 우리들에 대하여 최선으로 여우 꼬리를 지켰나니라. 모든 혈종血種의 총견銃犬들이 도시와 세계를 향한 방기放棄된 뿔 나팔과 더불어 비글 개사냥을 하고 있었나니, 그를 쫓기 위해 격렬히, 뜻에 따라, 가슴 높이 땀새 맡으며, 사냥

【97】 고물苦物을 향해 통렬하게. 바라보라! 그의 수혈獸穴로부터 서출鼠出되어, 험프리 추장追場의 크리스마스 계절의 온화한 교차지交叉地를 가로질러, 머리나요귀妖鬼와 공작촌孔雀村으로부터, 그리고 오른쪽을 향하여 대배촌大杯村으로, 이 노숙자는, 사자미형獅子尾型 웅자熊子 씨氏의 바셋 물이꾼들이 어떤 축의 곰서방(黑熊)으로 처음 오진誤診했던 하얀 크리스마스 야인野人이었으니, 짓어대는 자들의 선봉도피先鋒逃避를 행하는지라, 그러자 광명촌光明村과 감문촌閘門村을 통과하여 그리고, 고리(弧)를 고리(弧)하면서, 다시 대배촌으로 되돌아 왔도다. 취버스촌村을 통하여 급각도急角度로 몸을 피하는 이숙련耳熟練의 토끼, 그들은 그를 뒤쫓았나니, 라후린촌村과 울촌栗村을 통과하여 불리 하키 경기장 곁에서 그의 낚새를 채다니. 그러나 멋진 우회迂廻에서, 똑딱 심장 가슴받이를 댄 전장全裝 월동복 차림을 하고 발정發情의 언덕 위에서, 그가 최후로 실취失臭된 채, 상실되었을 때, 그의 장식술 달린 왕실용 장화를 신고 자신의 하숙집으로 그의 오랜 북구옥北歐屋을 지정하자, 어떤 귀머거리 여우 볼폰이 그를 가까이 은신처에 숨겼나니, 기적적으로 까마귀 양육되어 기운을 북돋우었나니, 흑위霍胃, 망위網胃, 벽적위穢積胃, 추위皺胃 속에, 육계색肉桂色의 크림 혼성주의 유장乳漿 덩이의 세리포도주성(性)에 맹세코(총양總釀 아브라함이며 제발 봉밀주를!), 레이나드 여우에게 노호怒號받아, 니케여신에게 구원되었도다. 그러므로 사냥개들이 부리나케 은가隱家하도다. 그의 내장內臟의 재교육에 있어서 보존적 인내가 반증反證이 되다니 따라서 그는 일단의 모든 특통음자特痛飲者들에게 일종의 커다란 우세를 보여 자신만 북滿腹했나니, 아교질과 육즙질肉汁質에 대항하여 규정식을 취했는지라, 저 언젠가 이전가以前街의 전시前市에서의 일이 었도다. 폭허暴虛하게도 폭거暴舉, 폭악暴惡 그리고 폭책暴責이 저 위대한 선승船乘의 무굴 제국의 독재자와 리넨 하의下衣의 대군주를 공세功稅하고 쟁탈하며, 탈선하고 탈위脫位하며, 격노

하고 침도侵道하며, 선동하고 비인非人하려고, 거의 전적으로 노색努索했나니라.

그러하나 주저자躊躇者들의 미끼, 주저의 매력. 그 자의 공취功取는 회화灰化하니, 킁킁 돌 튀기 너털너털쫄지라, 저강蹇強의 소침銷沈잔물결의, 헤이헤이헤이 한 움추리림촌뜨기.

집의회集議會의 사나이들이 중얼댔도다. 레이놀드는 느리다!

어떤 이는 그의 나날을 염려했도다. 거기 하품을 했나? 그의 위장이었지. 트림? 간장肝腸. 분출? 그의 가시소可視素. 대구大口? 그를 구하라, 오 하느님! 녀석이 자기 자신에게 과격한 손(자살)을 썼다는거다, 퍼거즈 뉴스서간집書簡集에 실렸지, 목숨을 내던지다니, 녹초가 되어, 흑사당한 채, 동등하게 우울한 죽음으로. 농신제農神祭의 삼일도三日禱를 위하여 그의 산양하인山羊下人이 녀석의 쌍의자雙意子들을 공회公會 광장으로 행진시켰나니 한편 여아女兒가 소녀를 유아幼兒하여 소란하게 인사 받으니 (경찰청 공인公認의) 호랑가시나무와 담쟁이덩굴과 함께 그리고 일백가촌一百街村의 성년남成年男들 그리고 울먹이는 여인들로부터

【98】겨우살이로 또한 조정調整되어. 커다란 강타성強打聲이 있었도다: 그러자 광황야廣荒野가 조용해 졌나니: 한 가지 보고報告: 침묵: 최후의 풍문마風聞魔 파마가 그것을 에테르 창공 아래 기록했느니라. 비소음鼻騷音 혹은 절규가 그를 광기狂氣로, 광기로, 석맹石盲으로 몰았나니라. 불꽃이 날랐도다. 그 자는 다시 도망쳤나니 (열려라 참깨 샤운웨이여!) 이 망명의 나라를, 탈피하여, 침상沈床으로 연안沿岸된 지중해를 경유하여 사도가행斜道家行이라, 화란의 저底 탱크, 궁둥이 배, 핀란드야 목통木桶 나선기선螺旋汽船을 타고 밀항密航하여 통정박桶碇泊했나니, 그리하여 그의 제7 세대에 있어서 이슬람교의 신개명新改名 하에, 대아세아大亞細亞의 코네리우스 마그라스의 육체를 (고악성격古惡性格이라, 부식고장腐蝕故障난 강통마개), 심지어 지금도 소유하고 있었나니, 그 곳에서 극장의 터코로서 (초장初場은 전혀 불경기라: 왕과 11명의 야바위꾼들) 그는 자신의 옴니 상자의 현란眩亂에서 벨리 댄서(배꼽 무희舞姬)를 터기 동전으로 괴롭히는가 하면 한편 거리 문간의 아라브 인인으로 그는 유고슬라비아 동전의 피터 헌금獻金の 시혜施惠를 도와 달라고 일천인두 一千人

頭를 졸라댔도다. 전선電線이 뒹뒹거렸나니. 평화롭게도, 유감사遺憾謝에 의하여 지지된 전반적 놀라움이 그의 존재에 종지부를 찍었도다: 그는 가족 승정僧正을 보았고, 체념한 채, 자신의 유품을 버리고, 조물주에 의해 소환되어 폐기장행廢棄場行되었나니. 짹짹 소리가 상교相交되었도다. 어떤 악명 높은 사병私病이 (속성화류병적俗性花柳病的) 종지권終止權을 주장하고, 자신의 사악순환邪惡循環을 문 닫게 했나니, 찰칵. 잼이 깜짝(항아리)이라. 그 자가 장식적裝飾的 백합지百合池의 한복판을 향해 걸어 들어가다니, 당시 보인 부수浮水에 도전하는 왕자어王子魚처럼, 떠 버팁 속옷이 니커버커 단 바지를 만나는 점까지 취침醉侵했는지라, 그 때 낚시꾼들의 최초의 조수助手가 반담수半淡水의 아주 가능한可能限의 몇 촉觸피트로부터 그를 구했나니라. 박쥐 우산이 펼쳐졌나니. 그가 맥주 펌프에서 술을 마셨던 우산가雨傘街의 한 친절한 노동자, 휘트록 씨가 그에게 한 토막의 나무 막대를 주었나니라. 무슨 힘(力)의 언어들이 그들 두 사람, 별명과 또한 이름, 신력외神力外的 별명들, 사이에 가능했던가? 말하자면, 오 그제, 하원 의사록이 우리들에게 말하듯, 전시全市의 모든 술집에서 모든 더브(린)의 귀를 흔들여 놓을 참인가! 벨티가 배턴(木杖)을 믿는가 하면 호간이 호드(木桶) 소리를 듣는지라 하지만 허어(主)는 연필 깎개를 더 좋아하나니 그리고 콧(套)과 불(牛)은 죽방울(부랄)을 걸도다. 그리하여 캐시디 아씨들—로무라와 레머스가 한 마리 집게벌레 주변에 아니 결코 저울눈이 여전히 언제나 그리고 아주 크게 그 때문에 저울질하다니, 그 속에 근심을 지닌 요람 또는 뒷발질로 작은 상자(棺)를. 원고原告 있으면 증인 있기 마련. 전쟁이 말(言) 속에 있고 목재木材는 세계라. 단풍나무의 나, 버들나무의 우리, 히코리 호둑나무의 그이 그리고 주목朱木나무의 그대들. 어찌된 셈이나 짹짹 지지거는 변전무쌍變轉無雙의 새!

【99】 황금 새벽의 영광에서부터 개동벌레의 미광微光까지. 우리는 콧콧수다스런지라 우리는 과묵하지 않았도다. 거기 여기 그 밖에 어디서든 기네스 가사와는 무관이라. 그러나 단지 비(雨)의 황폐가 들리나니. 만사 영원 할지어다! 바삭바삭 태운 돼지고기가 경련을 일으켰으니. 인간의 악역惡役이 돌고 돌아(륜輪!) 그리고 다시 돌으니 (과過!) 썰매 거리 근처에, 여기 그가 (지止!) 다시 나타났도다! 해마海馬(모스) 방해妨害가 소란했나니라. 그 자는 풀린 채 자유

로이 그리고 (오 아끼여!) 어디인가있을 지 모를 그 때 변장한 전前 수녀, 거대한 입상立像 그리고 여성의 꽤나 살찐 40대의 남성적 거동이라니, 비만의 거인 지가스타, 승합귀가버스와 더불어 방자한 차장에 의해 모주의帽注意를 모술흑帽術惑 당했나니. 안테나가 연안沿岸의 청취자들에게 츠 츠 신호하는 바에 의하면, 과세過稅 형제 수금원의 예산품목서 한 쪽, 전신全身 킬트 스커트, 모피毛皮 씬지, 넥타이, 장식 타래, 소매 없는 느슨 상의 및 피문은 방한防寒 외투, 그의 재단사의 (번언화더의) V.P.H. (비토리아 궁전 호텔)라 적힌 물표가 도적盜賊 화상형제火傷兄弟의 동굴 근처에서 발견 되었나니, 그리하여 탐구자들은 무슨 카이닛류類의 짐승, 늑대, 까까머리 반도叛徒의 또는 4페니 중놈이 그를 그토록 게걸스레 먹어치웠는지를 생각하고 몸에 치를 떨었나니라. 모스 부호(지속 전파)가 광송과廣送波했도다. 백평白平의 기쁨, 웅웁 똥이(蟲)의 흑미광黑微光, 발키리 수신호수信號, 녀석의 분홍석粉紅石 협문夾門에, 소년들이 말한 바, 성령강림제 주말에 잉크 칠한 이름과 칭호가 못질되어 있었으니, 가속적, 후퇴적, 섬유상纖維狀, 첨탑상尖塔狀에, 국민적 초서체草書體로 새겨진 채 그리하여 고집돈언육固執豚煉獄 속에 독밀봉毒密封 되었도다: 비킬지로다. 구걸求乞 맘티여! 엉덩이 럽티를 위하여 자리를 천천히 내놓아요! 명령에 따라, 니켈마魔의 병마개 놔야. 그리하여 이것은 계속하나니, 그에 관한 성령강림 절의 익살은 사라지고, 아무리 그의 종족이 급군거성적急群居性的일지라도 또는 그의 적재積載된 불굴정신 또는 입증신중성立證慎重性的의 진술이 속달적熟達의 박학적 현명적 교활적 가지적可知的 분명적 심오적 일지라도, 그이 추장, 백작, 장군, 야전 원수元帥, 왕자, 왕 또는 난도자亂刀者 마이러스 당사자가, 브레피니 제국의 기천교살幾千絞殺의 장원莊園 저택 및 툴리몬간 언덕 위의 즉위소即位所를 가졌다 한들, 누치료광선漏治療光線 건달왕의 장미십자회의 감사雜事의 진짜 모살謀殺은 과거에 있었나니, 사실상, 그를 파멸시킨 것은 맥마흔 도당들이었나리라. 버도어 맹초지猛草地의 들판 위에 광포누벽狂暴壘壁 전투병들이 그를 사자獅子처럼 사과司果 소스 피(血)의 천연색으로 손목 활발기活勃起된 채 그를 우수右手匣하여 사자獅子인양 눕혀 놓았나니라. 과연, 적지 않은 수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유지자有志者들이, 대부분 크론타프 기질氣質 계급에 속하는지라, (열예熱例컨대, 존 바울 오로아크 대령), 드브랜시의 삼어三語의 삼주간지三週刊誌, 토요산뇌土曜散腦 후석간後夕刊 포스트화지華誌의 여러 부수部數를 심지어 대부貸付 또는 간청하여, 그들의 준공헌우호동

지회準貢獻友好同志會가 육로이든 수로이든 진짜로 아주 딱정벌레처럼 종멸
終滅했는지를 언젠가 확실히 확인하여 만족하러 했나느니라.

【100】도양지渡洋誌가 그를 진애도震哀悼했나니. 제지梯紙! 제지梯誌! 그럼
그들의 희망을 침묵케 할까 아니면 맥화랜에게 비탄을 결缺할까? 그 자는 바
토로뮤(남 태평양)의 심해 속에 수數 리그 아래 누웠도다.

경분驚糞! 주청注廳! 경청傾聽! 총독 흑약돈黑若豚 교녀校女들을 방문하
다. 피니스 항원港園에서 세 애란모자愛蘭冒子가 스칸디나비아 거인을 만나다.
독주녀毒酒女 그녀의 우유정부牛遊情夫를 부비농富卑農에서 설욕說欲 추방하
다.

그러나, 그들의 명석한 당대 소인小人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救援
받지 못한 방랑인의 자살적 살인의 이튿날 아침, 마치 뱀이 저 참나무 아래로
비버(海狸)의 공작公爵 위로 미끄러져 내려오듯, (그대는아마도 연어로 유명한
파틴 석회석장石灰石場의 방향성芳香性 수지樹脂의 포프라 나무로부터 이종
異種의 어떤 호박액琥珀液의 삼출滲出을 보았으리라, 길(道) 그리고 장엄莊嚴
전나무가 외쳤도다! 아니야, 고상자高尚者들이여?) 9시 15분, 그의 회오悔悟를
탄원하면서, 우리들의 백전상왕百戰上王의 자색紫色의 버터 탑塔의 제7 박공
膊拱으로부터 정각正刻에 연기煙氣의 맹분출猛噴出의 교황무류敎皇無謬의 화
문전火門栓의 솟음을, 그러자 오후 갈시渴時(10시) 30분 그의 영구불변성에 맹
세코 (보라 맹목의 점자占者들을! 우리는 장년長年을 인내하리라!) 츠가르트
인공구人工丘 사원의 내반부內半部의, 온통 권위전언명權威傳言名의, 원야봉
화遠野烽火, 지속持續의 램프, 그 황막한 독수리발의 날개 달린 비룡飛龍, 그
의 황갈색 갈기, 회전저진回轉底振의 푸른 발톱 발, 저 탁월한 사나이, 저 축
늘어진 여인을 보았도다, 오랜 (오 땅이여, 얼마나 오랜!) 명야命夜 동안 진통
塵痛한 채, 핀그라스 세미細美의 광창光窓과 연광鉛光 창유리와 더불어.

그러므로 어떠한 사고중思考中인 것에 의하여 거의 이야기되어지지 않거
나 사고되지 않고 내버려두고 싶은 것이라니, 저 신성한 전당殿堂의 죄수는,
만일 그가, 어떤 무골無骨 아이보아 이든 혹은 수피獸皮 오라프 이든, 최선의
상태로 일석一石의 값을 지닌 한가지 우화, 존재하는 것의 공허의 숨쉬는 무례
한, 배어背語에 의한, 또는 한층 엄격히, 그러나 3중회전(트리스탄의) 두문자에

의한, 자기 자신의 복화腹話를 듣는 복험가腹險家, 공간세계를 초월한 세계공간에 대한 단서端緒 열쇠였는지라, 웬고하니 희귀인稀貴人으로서, 또는 자신의 사수로동시생자死水路同時生子들 가운데 애상적哀想的으로 좀처럼 드물게, 심각하게도 혹은 노老쿠르트인 선구先驅 다이크와 함께 (지구 인력은 어떤 고정 거주자들 그리고 그의 교회법 정전성正田性的 신빙성을 암시하는 우리들의 제도를 통하여 우연부유偶然浮游하는 혜성의 포착에 의하여 인식되는지라) 4차원 입방체로서 자신의 존재의 신뢰성을 오랫동안 거의 의심하지 않았느니라. 조용히 하라, 오 빨리! 그에게 입다물도록 말하라! 느릅나무의 저 잎들을 침묵케 하라!

[101] 산란散亂 여인들이 의아疑訝했나니. 그녀는 날쌔던가?

제발 모든 걸 우리에게 말하구려. 우린 모든 걸 듣고 싶기에. 그러니 지여신地女神이여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해요. 우리리들처럼 그녀가 숙녀답게 보이는 이유 또는 어쩐지 저쩐지 그리고 사내는 그들 자신들처럼 창문을 닫았는지 어떤지? 주석註釋들과 질문들, 내보內報들과 대답들, 웃음과 고함, 위와 아래를. 자 피차彼此에게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들을 눕히고 그대의 장미의 잎들을 펴요. 전쟁은 끝났나니. 음음 음음! 그건 일제一齊 무어 또는 에스텔라 급急(스위프트) 또는 바리나 요정 또는 어떤 제4 여인이었던가? 발구락마스여, 그대의 중숙重淑을 위하여 방을 조표造標하라! 돈목녀豚目女여, 무미無味를 삼가라! 누가, 하지만 누가 (두 번 다시 묻거니와) 당시 중부衆富의 루카리조드 근처 여러 곳의 두통자頭痛者들이었는지 곧잘 질문 받거니와, 그 때, 두렵위풍인頭立威風人의 후後 시대에 있어서, 자선가慈善家 피바디의 돈이 다 뭐야, 아니면, 통명스럽게 말하면, 청어鯖魚톤의 하얀 넥타이는 어디서 났지, 그 때, 한층 신생대新生代の 신기원에 있어서, 누가 수사슴 리를 때렸던가 비록 오늘날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재치 즉답卽答 그리고 모든 냉담한 미발美髮 소녀들 그리고 더블린 벽벽의 모든 적염열파동赤炎熱波動的 전부戰婦 및 평화과부平和寡婦를 알고 있는 7월의 20 배 또는 그 이상의 모든 교교녀校校女들은 영원히 어찌하여 때린 사람이 수사슴 리 자신이었던가를 계란이 계란이듯 확실히 알고 있거니와 (우리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 흡혈지吸血紙는 게다가 필요하지 않은지라), 그리고 그녀자신들이 자신들이었을 때 그이에 의하여

비열하게 얻어맞은 자는 수사슴 리 대신에 러시아의 장군이였도다. 그래! 그래! 무엇이 새 성城 문장紋章의 지불에 있어서 충분히 파고드는 색독索毒이 되었으며 또는 어느 것이 매소자賣笑者를 증오憎惡充했던가? 그리하여 그것이 이러한 독액毒液의 독소毒素요, 저 여왕두女王頭가 해방되어, 아주 냄새 고약한 풀 반죽 열성熱誠이 표면에 퍼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리 우표를 부쳤거나 아니면 후불後拂했든지! 광천수방鑛泉水房의 기둥서방들은 9 일간의 조소嘲笑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절규통絶叫桶의 세탁부洗濯婦들 역시 그리고 그 결의 혈도자穴棹者들, 칠순주절七旬周節의 어릿광대 놈들,정저우(鄭州) 출신자들, 그 때, 그녀의 오웬제경製鏡을 여전히 믿으며, 별들이 쌍휘雙輝할 때, 그녀의 무구無口의 얼굴 및 그녀의 비구적非久的 파마 물결의 상부上部가 자신 아내로서의 스스로의 반려伴侶, 그에게 한층 가까운 자, 모든 이 보다 한층 귀여운 녀女, 그의 이른 아침의 최초의 따뜻한 피조물, 가주家主의 여노예女奴隸, 그리고 모든 맥카비의 아들의 아들들의 소곤소곤 조모祖母, 그녀 자신의 침대를 위해 그의 눈을, 한 아이에게 한 개의 이(齒)를 주었던 그녀 그리하여 마침내 일壹(1)과 일십壹拾(10)과 다시 일백壹百(100)이라, 오 나를 오 너를! 심부름꾼과 맞 아들, 회발기灰髮飢餓와 녹색화綠色禍남이라 (그리하여 만일 그녀가 지금 그녀의 이빨보다 늙었다면 그녀는 그대의 허벅지보다 젊은 머리 털을 가졌나니, 여보!)

【102】 그의 추락 후에 그에게 덧문을 달아준 그리고 가차假借없이 그를 깨워 준 그리고 양주良酒를 준 그리고 그를 유능有能 아벨로 만든 그리고 그의 노아 코의 양쪽 호弧에 광휘여은光輝黎銀을 달아 준 그녀, 휴식 없이 그를 찾아 달리나니, 대양大洋의 도움으로,그녀가 그대가 찾고있는 진주부眞珠父의 바다 속에 그의 거대성巨大性的 빵부스러기를 감춘 뒤 찾을지 모를 어떤 그 시각까지, (척, 착, 축!) 앞으로 나아 갔나니, 적산호赤珊瑚 낚은 부표세계浮漂世界를 소철燒鐵하고, 성가신 명의名義로, 우르렁 소리를 위하여, 그녀의 기차 속에 시골을 억지 끌어들이면서, 여기서 떠들썩 저기서 흥겨워하며, 그녀의 루이 14 세 풍의 애란 사투리와 함께 그리고 그녀의 물 여과기의 부산대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작은 볼레로 목소리 그리고 그 밖에 그녀의 머리장식을 위하여 20 곱하기 2 배의 환상적 곱슬머리 타래, 그녀의 눈 위의 안경, 그리고 귀 위의

감자 고리 그리고 파리 아나 풍의 런던대기 코를 타(乘)는 서커스 십자가, X마스 날로부터 허풍떠는 아치형 말안장鞍裝, 성당 경내의 딸랑딸랑이 장애물 일요일 종예배鐘禮拜를 짤랑짤랑 울렸나니. 홀로, 그녀의 자투리 가방 속에 페로타 구입球入된 전당물, 주교모형主教帽型 장기 말 및 요기妖氣 장남감들과 더 붙어, 어적어적 씹는 자, 크림 수프 뒤집어 쓴, 능숙자能熟者, 각하를 위하여, 비방사자誹謗蛇者의 대갈통을 짜부라 뜨려 놓기 위해.

외적外的 외소外疎한 외인外人이며, 고여신모古女神母에게 변론할지니! 도회都會의 성모여, 그대의 향유열어심香油熱御心の 자비를! 엽차 葉茶를 초월한 정원사의 영광, 친親 악사樂士의 맥아어麥芽語. 그에게턱없이 큰 빵 쪽을 찢지 말지니. 그리하여 그를 휴식케 해요, 그대 여로자旅路者, 그리하여 그로부터 어떤 묘굴토墓掘土도 뱉지 말지라! 뿐더러 그의 토총土塚을 오손汚損하지 말지니! 투탕카멘 왕王의 사독死毒이 그 위에 있다. 방심치말라! 그러하나 거기 작은 숙녀가 기다리나니 그녀의 이름은 A.L.P.로다. 그리하여 그대는 동의하리라. 그녀는 그녀임에 틀림없도다. 그녀의 적애금발積愛金髮이 그녀의 등 아래 매달려 있나니. 그 자는 후궁처첩後宮妻妾의 난리亂離 속에 그의 힘을 소모했다네. 적赤 귀비貴妃 등자橙子, 황천하黃川河, 룩綠, 청수부靑水夫, 남감藍甘, 자화紫花. 그리하여 같은 또래 그파워 귀부인들이 그녀의 무지개 색 깔유머의 기질을 지녔는지라, 그럼에도 잠시 그녀의 변덕을 위하여 그가 한가지 처방處方을 신조新造했도다. 아침에는 티격태격, 밤에는 쪽쪽 그리고 한참 동안 내일을 사랑으로 애태우다니. 그러면 땀-으로-추락하는 자를 변호할 자 누구리오 아이들-로-불구不具된 자 외에는?

그에게 그녀의 999기(期)의 임차권賃借權을 팔았나니,
다발 머리 그토록 물감감미롭게 모두질 않은 채,
우자愚者여, 위대한 이사기한異詐欺漢, 몽땅 우탄吁吞했나니.
대구낭자大口囊者는 누구였으랴?
낭향우자浪江愚者여!

【103】도교島橋에서 그녀는 조류潮流를 만났도다.

아타봄, 아타봄, 아타봄차렷봄봄!

편녀女는 간조干潮를 그리고 그의 에바는 말을 타니.

아타봄, 아타봄, 아타봄차렷봄뭉!

우리 모두 세월까지 추적의 고향소리.

그것이 그녀가 우리를 위해 행한 일!

슬픈지고!

무광자無狂者가 네브카드네자르와 함께 배회할지라도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르단을 비웃게 할지로다! 왜고하니, 우리가 그녀의 돌 위에 이불을 폈나니,
거기 우리는 마음을 그녀의 나무들 속에 매달았도다. 그리하여 우리는 귀를 기
울였나니, 그녀가 우리에게 흘쩍일 때, 바빌론강 곁에.

(전 고려대)